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90호 【루계 제25233호】 주체105(2016)년 3월 30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노도쳐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과 창조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자

70일전투장에서 보내온 소식

석탄전선에서 다계단으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

30여일동안에 전투목표보다 24만여t의 석탄 증산, 여러 탄광들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 돌파

70일전투가 시작된 30여일 동안에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인 석탄전선에서 참으로 놀라운 성과들이 다계단으로 폭발적으로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70일전투의 날과 날이 흐를수록 순천, 덕천, 안주, 개천, 북창, 득장, 함남, 강동, 구장, 천내, 온성, 경흥 등 각지 탄광련합기업소들에서 생산실적이 끊임없이 장성하여 지난 3월 15일이후부터 성적으로 높이 내세운 70일전투목표에 비해 일평균 1만t이상 더 많은 석탄이 생산되여나오는 놀라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그리하여 각지 탄광들에서 70일전투가 시작되여 30여일동안에 전투목표에 비해 24만여t의 석탄을 증산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각지 탄광들에서 오늘보다 더 가슴후련한 석탄생산실적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성과들도 이룩되였다.

석탄공업성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탄광들에서 70일전투가 시작되여 30여일동안에 전투목표에 비해 기본굴진은 2 800m, 준비굴진은 4 700m, 착업굴진은 6 000여m 더 늘이였다. 700여대의 탄차를 생산하고 수천대의 탄차를 복구하였으며 70일전투 탄차바퀴생산목표를 돌파한 각지 탄광기계공장들에서의 탄광설비와 부속품생산성과 또한 자랑차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월봉탄광,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인포탄광에서는 최고생산년도 일평균생산수준을 갱신하였으며 사리원탄광에서는 3월 중순까지 높이 내세운 70일전투 석탄생산목표를 앞당겨 수행하였다.

7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 그리고 로동자들의 애국적인 투쟁으로 북창의 대동력기지와 순천화력발전소의 저탄장들에는 전력생산을 위한 10여일분의 석탄이 쌓이고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 남흥과 흥남의 비료생산기지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줌으로써 온 나라 대고조적전장들의 70일전투성과를 믿음직하게 담보하였다.

석탄전선의 70일전투장마다에서 이룩되는 눈부신 성과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친 일군들과 탄부들의 사상의 위력, 단결의 위력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년대기들마다에 진행된 70일전투, 100일전투, 200일전투의 나날에 발휘한 천세대 탄부들의 투쟁정신과 본때로 석탄생산에서 전례없는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가도록 첨입식정치사업을 줄기차게 벌리였다.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라는 시대의 부름앞에 자신들을 세워보며 각지의 탄부들은 지하막장마다에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증산의 동음이 그칠줄 모르는 지심깊은 갱막장들마다에는 성과 련합기업소, 탄광일군들이 서있었다.

일군들은 전진을 가로막는 난관이 나섰을 때에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며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꼈고 앞선 채탄방법과 굴진방법들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막장들에 통발나무가 더 요구되면 험준한 산판에 올라 나무를 끌어내렸다.

70일전투가 시작된이래 각지 탄광 수천척지하막장들에서는 한몸이 그대로 레루가 되고 동발나무가 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일군들과 탄부들의 영웅서사시적화폭이 끊임없이 펼쳐지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하루생산실적총화에 앞서 일군들이 그날 몇명의 탄부가정을 방문하여 어떤 문제들을 풀어주었는가 하는것을 총화하고 평가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 탄부들의 증산열의를 더 높이 분출시키고있다. 갱내 하루석탄생산량에 있어서 종전에 비해 근 2배의 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는 련합기업소의 자랑찬 성과에는 이곳 일군들의 이런 투쟁기풍과 일본새가 안받침되여있다.

나라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있는 2.8직동청년탄광 일군들은 석탄선별계통을 완비하고 생산의 첫 공정에서부터 질좋은 석탄이 나오도록 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조직전개함으로써 생산량도 부쩍 늘이고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우리 나라 탄광부문적으로 처음 갱내석탄운반삭도화를 실현하고 관성식적재운반설비를 막장들에 대대적으로 도입한 천성청년탄광에서는 일생산경쟁실적에 따라 탄부들의 하루일을 즉시에 정확히 평가해줌으로써 탄광의 생산을 비약의 궤도우에 올려세우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하루 천t이상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최근년간에 들어와 비약적인 생산성과를 거두고있는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 70일전투일정계획에 비해 18일 앞서나가고있으며 천내, 장동, 구장,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도 10일분이상의 석탄생산을 앞세우고있다.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종봉탄광에서는 3월 19일까지 월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앞선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드세찬 공격전의 낮과 밤이 흐르는 속에 지난 시기 불리한 생산조건으로 생산을 늘일수 없다던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월봉탄광에서는 최고생산년도 일평균생산수준을 돌파하였다.

7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증산의 드높은 토성을 힘차게 올려나가고있는 각지 탄광들의 30여일석탄생산실적을 놓고보면 뒤떨어진 단위가 따로 없다.

어느 탄광, 어느 막장에서나 눈부신 비약이 일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창조정신이 나래치고있다.

뜻깊은 태양절까지 년간굴진계획을 앞당겨 끝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높이 지하막장에서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가는 석탄공업부문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였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온갖 원쑤들의 가증스러운 책동을 자강의 무쇠마치로 쳐깔기며 석탄전선의 미더운 일군들과 탄부들은 70일전투승리의 고지를 향하여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창조의 불길높이 힘차게 진격해가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인포탄광에서 —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70일전투목표 련이어 돌파

채취기계공업국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뼈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날에날마다 새 기적, 새 기록이 창조되는 속에 채취기계공업국에서 혁신의 새 소식이 전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국아래 여러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70일전투에 진입하여 매일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200%이상 넘쳐 수행함으로써 10여종에 1 000여대에 달하는 중요채취설비들을 들끓는 전투장들에 속속 보내주었다. 하여 국아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70일전투목표를 29일현재 112%이상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근 1.6배에 달하는 이 자랑찬 생산성과는 당의 부름에 절사관철로 화답하는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영웅적기개가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채취기계공업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제국주의자들의 가증스러운 고립압살책동을 증산의 거세찬 동음으로 쳐갈길 떨쳐의 기상안고 70일전투에 진입하였다.

국에서는 70일전투목표는 3월말까지, 상반년도계획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전으로 기어이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생산지대증이 수령의 올혼받침전,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일군들이 한개 공장씩 맡고 내려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 풀어주면서 대오의 선봉에서 힘차게 내달렸다.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옮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나가는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떨치며 국아래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날에날마다 새 기적, 새 기록을 창조하고있다.

안주볼프공장 로동계급이 당 제7차대회장에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펏펏이 들어설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비상한 공격속도로 앞장에서 내달렸다. 이들은 지난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매일 전투계획을 200%, 최고 230%이상 넘쳐 수행함으로써 28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70일전투목표를 강행돌파하였다.

전천착암기공장에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불리한 조건에서도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며 맡겨진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주체96(2007)년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착암기생산을 늘이고 공기버팀대를 비롯한 부대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주신 유훈을 절사관철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렸다. 년로보장을 받은 오랜 기능공들도 전투현장으로 달려나와 스스로 기술혁신돌격대원이 되여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갔다.

동림전기공장, 장산전기공장, 신의주광산기계공장들에서도 기적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천만군민을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이곳 로동계급은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동기, 광차를 비롯한 70일전투기간 대상설비생산목표들을 25일까지 넘쳐 수행하였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파갑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10여이 넘는 천정기중기를 비롯한 5종에 7대의 대상설비들을 18일까지 생산하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전설장에 보내주었다.

동림광산기계공장, 평양탄광기계공장과 사리원광산기계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설비, 부속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과학기술을 앞세우지 못하면 만리마의 기수가 될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로운 전동기를 결합한 적재기, 전차, 착암기 등 새 제품들을 당 제7차대회전으로 완성할 목표를 내걸고 적극 추진하고있다.

전혁철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에 소독수제조기를 보내주었다

함경남도인민병원에서

함경남도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이 70일전투기간 전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에 소독수제조기를 보내주는 사업을 빛나게 결속하였다. 이 소독수제조기는 얼마간의 소금만 있으면 어디서나 국가전기를 보장받지 않고도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여 소독수를 훌륭하게 제조할수 있는 특허제품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이에 들려세워 21세기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더 활짝 꽃피우는데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충정의 마음안고 병원에서는 몇해전 옥류아동병원에 시간당 300L생산능력의 소독수제조기를 제작하여 보내주었다. 이 소독수제조기는 현재 평양산원을 비롯한 수십개의 병원들에서도 큰 은을 내고있다.

실장인 박사 리승철동무를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사랑속에 곳곳에 일떠선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에 성능좋은 소독수제조기를 제작하여 보내주기 위한 전투를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들은 대동강기슭에 아이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에 4대의 소독수제조기를 제일먼저 보내준데 이어 내각의 해당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정성육아원과 애육원, 남포시 온천초등학원을 비롯한 전국의 20여개 단위들을 찾아가 소독수제조기를 기증하고 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는 이곳 의료일군들을 더욱 분발시켰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70일전투기간에 전국의 모든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에 소독수제조기를 보내주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이 소독수제조기는 집단생활단위와 병원들에서의 예방소독을 비롯하여 식료공업, 금양봉사부문, 농업부문, 수의축산부문, 양어부문 등 그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리용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고있다.

현지보도반

우리 식 합금철생산성과 확대

부령합금철공장에서

부령합금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비상한 애국열의를 폭발시켜 합금철생산에서 최고생산수준을 돌파하며 기세좋게 나가고있다. 이들은 지난 3월 22일 합금철생산에서 최고기록을 내고보니 우리 식의 합금철생산방법의 생활력과 위력을 또다시 과시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조직에서는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정의 70일전투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온 공장에 철야진군의 포성이 더 높이 울리도록 하였다.

공장참모부에서는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생산실적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기사장 차성철동무를 비롯한 참모부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국산화실현을 위한 큰 걸음을 내짚는 과정에 공장에서는 새로운 우리 식의 로조업방법을 받아들임으로써 지난 시기보다 생산성을 무려 1.7배이상 높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공장에서는 당 제7차대회전으로 15호전기로를 개건하기 위한 전투도 립체적으로 힘있게 벌려 많은 일을 해제낌으로써 현재 마감단계에 들어섰다.

공장의 공무보수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도 종전의 전기로를 대담하게 헐어버리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성을 1.2배로 높일수 있는 전기로를 설계제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 제7차대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신심드높이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계속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인민들에게 맵시있는 신발을 더 많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산악같이 떨쳐나선 여러 단위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신발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상반년생산계획 앞당겨 완수

원산구두공장에서 70일전투시작부터 불꽃튀는 증산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려 지난 19일까지 상반년도구두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70일전투의 성과여부가 자신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은 증산투쟁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였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오늘의 하루하루를 당과 혁명, 조국앞에 긍지높이 총화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벌려나갔다.

재단작업반의 로동자들이 구두생산에서 선행공정을 맡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기대마다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작업반에서는 설비를 기술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 재단작업에서 매일 계획을 3배로 넘쳐 수행하는 집단적혁신을 창조하였다.

갑피직장의 로동자들도 전화의 나날 전선에 탄약을 공급하던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으로 갑피들을 련속 누벼나가며 날마다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은 제화직장과 사출작업반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제화직장의 로동자들은 공정간 련계를 긴밀히 하면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구두완성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사출작업반의 로동자들도 기술혁신으로 리용률이 1.2배로 높아진 원료혼합건조기를 비롯한 설비점검과 보수를 짜고들고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구두창생산에서 혁신을 창조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많은 제품을 새로 개발하고 남자구두의 무게를 15g이나 더 줄이는 성과도 이룩하였다.

현지보도반

학생용구두생산 결속

70일전투의 하루하루가 격동속에 흐르는 지금 순천구두공장에서 학생용구두생산이 전부 결속되였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생산전물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여러 공정의 개건전투를 벌리는 조건에서도 지난 24일까지 공장앞에 맡겨진 학생용구두생산을 성과적으로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공장에서 70일전투의 주요목표인 학생용구두생산이 결속된 것과 당에서 제시한 전투과제를 드팀없이 수행하고 생산성과를 확대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순천구두공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단위이다.

공장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학생용구두생산을 높이 세운 목표보다 훨씬 앞당겨 끝냄으로써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의 영예를 떨치고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전투기록장에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겼다.

전투기간 오명일, 신정숙, 김무동무들을 비롯한 일군들은 생산전물 및 기술개건, 신발생산성과를 동시에 확대하기 위해 조직정치사업을 신속있게 짜고들었다.

일감이 방대한 조건에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접히 결합시켜 전투실적을 높이기 위한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원철, 민성철동무들을 비롯한 기술집단에 의해 국내원료로 많은 기료품과 원자재를 자체로 보장할수 있는 혁신안들이 련이어 도입되였다. 결과 활성제에 의한 재생고무의 질제고가 실현되여 생고무소비량이 적어지고 점착제의 세기와 색갈도 개선되여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초급일군들과 기술일군들의 참가밑에 품평회와 직장과 작업반별실적, 제품의 질을 정확히 분석평가하는 사업이 신속있게 진행됨으로써 현장들에서 70일전투성과는 전례없이 확대되였다.

구두재단작업반과 생필, 주문작업반의 생산자들이 혁신의 불길을 고조시켰다. 이들은 교대, 작업반별경쟁열풍을 일으키며 날마다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구두제화, 수지원료, 사출직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 종업원들도 앞선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생산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의속에 공장의 생산실적은 매일 보통때보다 1.5배이상 기록되였다.

생산전물개건 및 설비갱신전투와 동시에 학생용구두생산의 슬결이 높던 나날은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현대화이자 국산화라는 관점밑에 3대혁명소조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수입병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벅찬 투쟁과정이였다.

학생용구두생산을 끝낸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최단기간에 명제품개발 및 생산성과를 확대하여 인기제품생산단위로 자랑떨칠 결의밑에 철야전투의 슬결을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본사기자 지원철

사출운동신생산과제 수행

혜산신발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소학교신입생들을 위한 사출운동신생산을 결속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새 학년도를 앞두고 소학교신입생들에게 공급할 사출운동신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혜산시에서는 군중을 발동하여 많은 량의 유휴자재를 수집하여 공장에 보내주었다.

재봉1직장 1작업반원들은 호롱식생산공정에 맞게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2작업반원들도 기대에 정통하고 능숙하게 다루면서 힘찬 돌격전을 벌려 2배, 3배의 생산실적을 올리였다.

사출작업반에서는 적은 전기로 사출기를 만가동시킬수 있는 새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생산을 부단히 높여나갔다.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탈류기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원료를 절약하면서 신발의 질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공장에서는 수만켤레의 질좋고 맵시있는 사출운동신을 생산하여 량강도, 자강도의 소학교들에 보내주었다.

특파기자 전철주

위대한 당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일군

선군혁명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박송봉동지의 성장의 갈피를 더듬어

위대한 장군님의 진정한 동지가 되여 진심으로 당을 받든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열혈충신들이 우리 장군님의 곁에 있었기에 1970년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력사적인 전환이 이룩되였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성기가 펼쳐졌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있다.

우리 당력사에 충포성없는 전쟁으로 수록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박송봉동지와 같은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충정의 신념과 의리, 비상한 실력으로 받들었기에 조국앞에 드리웠던 시련의 먹장구름을 가시고 강성국가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잔대미문의 시련의 나날 매일같이 전해지는 혁명활동보도와 함께 사람들의 뇌리에 인이 박힌 박송봉동지,

그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였는가를 아는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는 그가 어떻게

위대한 손길

성스러운 조선혁명은 명도자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된 불타는 심장들이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동지애의 위력으로 류례없는 성공탑을 쌓아올린 위대한 혁명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인민과 혁명을 알고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새기였으며 삶과 투쟁의 진리를 터득한 나날은 박송봉동지에게 있어서 혁명의 대성인에 대한 열화같은 매혹과 흠모심으로 심장을 불태운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다.

피눈물의 해를 보내고 맞은 새해 첫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친필서한을 자자구구 뼈에 새기는 박송봉동지의 가슴에서 무한한 힘과 열정이 활활 타번지였다.

종일 달아오른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새해에 수행할 전투목표와 그 집행대책을 세우느라 밤늦게 되근한 그였다.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전화였다.

오늘 다박솔초소를 찾아 인민군전사들과 함께 설을 쇠고 저녁에는 현지지도총화를 하고 이렇게 밤늦게 전화를 들게 되였다고, 자신께서는 이제부터 군대와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동무가 많이 도와주오라고 다정히 이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음성이 그의 폐부에 흘러들었다.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박송봉동지는 이를할수 없는 격정에 넘친 어조로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장군님의 뜻을 충정으로 받들며 따르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때 그의 심정은 장군님께서 바라신다면 당장 타해치는 불속에라도 뛰여들 열망으로 불탔다.

이렇게 피눈물의 언덕에서 박송봉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을 받으며 장군님의 선군길을 따랐으며 그 길에서 시련도 영광도 장군님과 함께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에서 체험하는 가슴뜨거운 모든것은 박송봉동지로 하여금 불세출의 선군정치가이신 장군님의 참된 동지로 성장할수 있게 하는 선군혁명대학 과정이기도 하였다.

겨울이면 눈바람에 소가죽처럼 팟팟해진 야전솜옷, 성에가 허옇게 얼어붙어 고드름이 달린것처럼 보여 가슴미여지는 그 인상적인 털모자차림으로, 여름이면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시면서 병사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흔연히 걸음을 재촉하시는 장군님.

전 전선을 종횡무진하시는 길에서 강냉이죽 한끼니와 무우오가리찬이 전부인 식탁을 마주하시고도 항일유격대원들은 식량이 떨어지면 눈을 감여 허기진 배를 달래면서도 누구 하나 비관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법의 법 고생을 하여서라도 기어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수호하고 최악의 조건에서 생활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락원의 집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말게 드시던 장군님,

열백번도 더 쓰러질번 한 혁명과 인민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헤치지 않으시면 안되는 선군혁명의 길은 얼마나 가렬처절하였던가.

걸음걸음에 피눈물이 고이는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은 박송봉동지의 가슴에 우리가 흘린 피의 대가를 절대로 헛되이하지 말아야 함을 천연바위의 글발마냥 새겨주는 력사의 길이였다.

주체85(1996)년 6월 어느날도 그런 하많은 날들중의 하루였다.

아침부터 대줄기같은 찬비가 퍼부어져 사위가 온통 스산한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향하여 달리고있었다. 서방세계가 수십억US$ 이상이 투자되였을것이라고 산출한 서해갑문 총공사량의 두배가 넘는 엄청난 공사, 일부 나라들까지도 《도저히 불가능한 무모한 공사》라고 할 정도로 시공공정 또한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안고있는 어려운 공사였다. 이런 방대한 공사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에 맡겨주시였던것이다.

발전소구조물들을 일일이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길굴로 향하실 때였다.

갑자기 군인건설자들속에서 《최고사령관동지!》하는 격정의 함성이 터졌다. 장군님께서 위험천만한 곳에 절대로 들어서시여서는 안된다는 애원에 찬 눈길들이 일시에 그이를 우러렀다.

우리 인민군전사들이 희생을 무릅쓰고 건설한 물길굴인데 들어가보자. 앞으로 발전소를 조업하면 물길굴을 영영 보지 못한다. 물길굴에 물이 차있으면 자동차를 타고 서라도 꼭 들어가보겠다!

군인건설자들도, 동행한 일군들도 이를 할수 없는 격정으로 설레였다.

이윽고 그이께서 타신 차가 무릎을 넘게 넘실거리는 물길굴을 누벼나갔다.

물길굴에 슴배인 사랑하는 전사들의 불굴의 희생성과 영웅적위훈을 더듬어보시는 장군님의 가슴에는 불덩이가 이글거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손수건을 꺼내여 눈금을 찍으시였다.

좀더 천천히, 더… 천천히 가자. 우리 병사들이… 피와 땀으로 건설한 이 물길굴을 끝에서 끝까지 자세히… 보자.

위대한 장군님의 갈리신 음성에 박송봉동지의 두볼로는 뜨거운것이 줄줄이 흘렀고 심장은 급시 터질듯 높뛰였다. 솟구치는 격정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드는 결사의 길에 한몸을 초불처럼 바칠 불타는 맹세로 이어졌다.

(우리 군대의 절대성, 무조건성, 자력갱생, 자기희생정신을 폐부로 절감하라고 나를 데리고 오신 그 뜻을 내 한생 심장에 안고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결사의 신념과 투지로 받들리라.)

박송봉동지를 곁에 두시고 인민군대처럼 당의 의도를 민감하게 포착하는 혁명열을 심어주시며 당정책관철에서 끝장을 보는 실천력이 강한 일군으로 키워주시는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들이신 품과 로고는 정녕 끝이 없었다.

온 나라가 강행군을 하던 어느해 10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화로 박송봉동지를 찾으시여 아무래도 다시 자강도에 가야 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차비를 하고 나오라고 이르시였다.

방금 돌아온 1,000여리길이였다.

사연인즉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기다리는 문전중에 다이야수입과 관련한것도 있었다. 그 문전을 보시며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시였다.

생의 자욱

명도자의 위대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옹호하고 결사의 투신으로 받드는 혁명전사의 일편단심처럼 진실하고 순결한 감정은 없다. 박송봉동지가 남긴 생의 자욱을 밟아보면 그 절리를 터득하게 된다.

원쑤들의 미친듯 한 고립압살책동, 사정없이 들이닥쳐 모든것을 휩쓸어가는 대홍수, 말끔히 말리는 왕가뭄의 계속…

박송봉동지는 나라가 위기의 최후계선에 이르렀던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민족의 존엄과 번영의 만년초석을 쌓는 길에 한몸바친 애국자이다.

끝없는 믿음이 박송봉동지의 어깨우에 덧쌓이던 주체85(1996)년 봄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은 박송봉동지는 한달음에 그이께서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동무를 만날적마다 강조하는바이지만 우리의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존비시키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아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장군님, 저는 이 한몸 짱그리 바쳐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평소에 수집음을 잘 타는 그였지만 위대한 장군님앞에서 맹세를 다질 때면 결사전에 나서는 병사의 자세를 방불케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충정의 결의가 담겨진 동무의 말을 들으니 힘이 솟는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시련의 나날 앉으나서나 그의 심장을 자석처럼 끌며 높뛰게 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가 오늘도 우리 일군들의 가슴에서 불이 이글거리게 한다.

우리 일군들이 중요한 단위들을 하나하나 타고앉아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울수 있습니다!

나는 일군들로부터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을 때가 제일 기쁩니다!

박송봉동지의 심장은 일군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믿음과 기대로 순간순간 뜨겁게 고동쳤다.

(나에게 맡겨진 과업만이라도 충실히 수행한다면 분과 초를 쪼개가시며 헌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부담을 얼마간이라도 덜어드릴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책임감으로 그의 마음은 늘 큰 연덩어리를 안은듯 무거웠다.

박송봉동지와 함께 일한 일군들은 그를 두고 군수산업이면 군수산업, 민수산업이면 민수산업에서 막히는데가 없는 만능가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결코 타고난 인재가 아니였다. 동력기사자격밖에 다른 전문가자격을 받은것은 없었다.

그러나 박송봉동지는 자신의 피라는 노력과 헌신으로 당앞에 다진 전사의 맹세가 법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실천으로 보여준 일군이였다.

모든 부문에 전문가이상으로 밝고 정통해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훌륭하게 실천할수 있다는 각오로 그는 실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모질게 채찍질하였다. 우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심장에 새아박고 모든 분야의 책을 거의나 탐독하였기때문에 그는 장군님께서 주시는 과업을 신속정확히 집행할수 있었다.

그는 우선 전반적인민경제를 추켜세우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전략을 뼈에 새기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부문에서부터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사전에 뛰여들었다.

어떤 때는 몇달이 걸려야 한다는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를 단 며칠동안에 전면적으로 료해하느라 입술이 부르트고 온몸에 멍이 들 때도 있었다. 추위가 뼈속까지 스며드는 날 종일 현지를 밟아보며 한지에서 일을 모색하고 작전해야 하는 날도 있었다. 젊은 사람들도 배찬데 그러다가 쓰러지지 않겠는가고 걱정하는 일군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덤덤한 표정이였다. 그 표정속에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에 자기를 따라세우지 못하는 고충이 깔려있었다는것을 사람들은 알수 없었다.

고난의 강행군도 바야흐로 끝나가던 해 12월 어느날이였다.

온 한해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날씨가 제일 사나운 날에 길을 떠나시였다. 여러 부문에서 자동차, 자동차 하며 비싼 자금을 내여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문제를 방관하실수 없었기때문이였다.

벌써부터 관심하고 해결하였어야 할 문제때문에 또다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먼길을 걸으시게 하는것이 죄송하여 장군님을 수행하는 전기간 그의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공장의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것을 귀중히 여기고 모든것을 자립적민족경제발전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지금단계에서는 세워놓았던 기계설비들을 가동시키고 공장을 돌리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분사구도 자체의 힘으로 개조하여 앞선 나라들을 따라앞서야 한다고 하시며 공장을 살릴 방도를 밝혀주실 때 박송봉동지는 장군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자기같은 일군이 열이면 열하고 백이면 백이라도 죽을것이라고 하는 량심의 가책으로 못내 민망스러웠다.

모든것을 자립적민족경제발전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당부가 뇌리를 치며 그를 더욱 분발시켰다.

박송봉동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에 무한히 고무되여 일떠선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과 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높이고 련관된 수십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돌아가게 하는데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 바치였다.

그때의 충격적인 일을 계기로 박송봉동지는 사업에서 절대로 만족을 몰랐으며 장군님의 의도대로 자립경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일감을 찾고 끊임없이 전개하느라 동서남북을 매주밟듯 하였다.

그는 언제 한번 생산정상화문제를 놓쳐본적이 없었다.

때로는 전화로 일군들을 만나 실태를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를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려 대책을 세웠으며 필요하면 먼길을 되돌아가서라도 대중속에 들어가 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남들이 눈앞의 가시적성과를 놓고 자만할 때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경제활성화에 묵묵히 한생을 바친 일군이였다.

그런 전사를 대견해하시며 동무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처럼 밤낮으로 뛰여다니게 하여 미안하기 그지없다고, 힘들겠지만 어떤지 일감이 생기면 동무에게 맡기게 된다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으로 활력을 부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무렵의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송봉동지에게 한 공장의 실태를 료해하고 오라는 과업을 주시였다.

순간 박송봉동지는 그 공장이 나라의 전력생산과 관련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관심하시는 단위인데 미리미리 실태를 보고드리지 못하여 걱정을 끼쳐드렸다는 가책으로 가슴이 저려들었다.

그의 얼굴에서 이런 진심의 고백을 읽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음을 녹잦혀주시면서 동무도 여기저기 뛰여다니며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오늘의 경제난국을 헤쳐나가자고 도리여 고무해주시였다.

박송봉동지로부터 공장의 실태를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곧 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과업을 그에게 맡겨주시였다.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은 박송봉동지는 노도와 같이 일떠선 공장로동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임무를 무조건 제기일안에 관철하고 장군님께 충정의 보고를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시며 동무의 수고가 많았다고 그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박송봉동지의 마음은 하늘을 날듯 즐거웠고 기뻤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는 이런것에 혁명을 하는것이라는 끓어오르는 행복감에서였다.

국사중의 국사인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군력강화와 전력, 기계공학, 첨단과학기술, 농업…

박송봉동지는 어느 분야나 손금보듯 환히 꿰뚫고있는 다재다능한 일군이였고 이를데없이 정확하고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일을 흠잡을데없이 해제끼는 팔방미인형의 일군이였다.

충정과 실력, 헌신적인 실천력을 완벽하게 갖춘 전사였기에 시련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를 남달리 사랑하시였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에 대한 과업을 많이 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이 더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잘 익은 벼이삭처럼 자세를 더 낮추고 많은 일감을 받기를 바란것이 그의 진모습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사회주의를 지키고 최후승리를 위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짓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 때 그이앞에 서있는것조차 죄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한 일군,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기문제를 푸시기 위하여 허리치는 눈길도 헤치시고 야밤삼경에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때 자기가 일을 쓰게 하지 못하여 장군님께서 고생하시는것이라고 눈물에 젖은 얼굴을 팔소매로 훔친 일군,

자기가 오늘처럼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은것은 혁명가을자녀들을 마음껏 공부시켜 훌륭한 일군으로 키우는것을 숭고한 의리로, 평생의 소원으로 여기신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유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주신 사랑과 은정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고 쪼아박은 자서전을 자나깨나 잊지 않고 혁명의 수뇌부가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어떻게 관철하여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준 충신,

우리 당과 인민의 추억속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충신으로 영생하는 박송봉동지는 오직 령도자의 사상과 뜻에 살고 자기의 령도자와 진정으로 생사운명을 함께 한 우리 당의 참된 아들이였다.

우리 혁명의 선군정치사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박송봉동지의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헌신의 원천에 대하여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박송봉동지가 천만금보다 귀중한 령도자의 믿음을 받아안은 혁명전사에게는 령도자를 신념과 의리로 받들려는 진심, 오직 이것만 있으면 무에서 유도 창조할수 있다는 혁명가의 인생철학,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길에는 혁명화된 일군, 실천가형의 일군만이 요구된다는 철리를 체질화하였기때문이였다.

사랑의 대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대표하는 일군인 박송봉동지가 조국과 인민앞에 공적을 세울수 있은 비결은 명실공히 천금주고 살수 없는 위대한 동지의 사랑이였다.

자기를 모래알같은 존재로 느끼던 전사도 불사신으로 키워주고 산악도 격랑도 넘고 헤쳐 선군혁명의 대업을 이룰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억척으로 다져준 위대한 동지의 품이 우리 장군님의 웅심깊은 정과 열의 품이였다.

조국이 시련을 겪던 어느해 겨울이였다.

아침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은 박송봉동지가 막상 길을 떠나려고 밖에 나서니 바람이 불고 진눈이 내리고있었다.

멀리 떠나는 전사를 바래주려고 밖으로 나오시다가 점점 굵어지는 눈발을 보신 장군님께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였다.

《가지 마시오. 이런 날씨에 길에 나섰다가 큰일을 치렀소.》

순간 박송봉동지의 뇌리에 번개처럼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해 초겨울 어느날에 있은 일이였다.

그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먼 지방에 갔다 돌아오던중 그는 뜻밖의 차사고로 하마트면 큰일을 당할번 하였다. 혈육처럼 아끼는 전사의 신상에 닥친 사실을 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그가 도착하자 와락 껴안으시고 눈물에 젖은 음성으로 곱씹으시였다.

《살아왔구만, 살아왔어.》

장군님께서는 다시 어버이품에 안긴 행복으로 눈물범벅인 그의 두볼을 씻어주시고 쓰다듬어주시면서 다시 꼭 품어주시였다. 잃을번 한 자식을 찾은 어머니의 모습그대로이시였다.

《동무가 잘못되면… 내 어디 가서… 동무같은 사람을 만날수 있겠소.》

수건으로 젖어든 눈굽을 찍어내시다가는 다시 가까스로 말씀을 이으시는 위대한 장군님,

정말 상한데가 없는지 안심치 않으시여 서둘러 전사의 어깨며 팔이며 다리를 세세히 만져보시기를 그 몇번…

《아버지!》

박송봉동지는 저도 모르게 꼬꾸라지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으며 목놓아울었다. 세상에 태여나 처음 불러보는 아버지였다.

그를 부여잡으신 장군님의 어깨도 그냥 들먹이고있었다. …

그날의 일을 상기할수록 우리 장군님의 어깨우에 실린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는 길에서 날씨를 가린다는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이였다.

전사의 얼굴에서 이런 각오를 읽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니까 기어이 가겠단 말이지라고 외우시더니 잠간 있으라고 하시고는 급한 걸음으로 방으로 되돌아가시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에 종이에 싼 자그마한 꾸레미를 들려주시면서 로상에서 무슨 일이 생겨 지체되면 필요할것이라고,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고 명령조로 당부하시였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점도록 눈발속에 서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박송봉동지는 오열이 북받치는 것을 금치 못하였다.

차가 얼마쯤 달리였는지… 종이꾸레미에 눈길이 미치여 펼쳐보는 순간 박송봉동지의 목에서 뜨거운것이 울컥 치밀어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장하실 때마다 드시는 강냉이펑펑이가 아닌가.

그의 두볼로는 물목이 터진듯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였다.

사랑하는 자식을 남에게 맡기고 혁명의 길을 떠나는 날 치마끝에서 사랑을 꺼내 손에 쥐여주며 울지 말라고 달래던 어머니,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 그 어머니의 어렴풋한 모습이 다시금 우렷이 떠올랐다.

점점이 떨어지는 눈물이 종이꾸레미를 화락하니 적시였다. …

위대한 평민의 귀감으로 전사들을 키우신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란 박송봉동지는 한생 사업과 생활에서 성실하고 검소하였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사심이 앉을 자리가 없었다. 함께 일하는 일군들의 신상에 대하여서는 그처럼 다심하게 관심한 일군이였지만 안해가 10여년간 중병으로 앓아 자리에 누워있는 사정은 좀처럼 내비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결곡하고 고정한 성품을 귀중히 여기신 우리 장군님께서만은 전사의 가정에 대하여 늘 사려깊이 관심하고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송봉동지가 앓는 안해때문에 마음이 가볍지 못할것이라는데 대하여 늘 생각하고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경북도인의 인민경제부문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시던 어느해 3월이였다.

하루는 박송봉동지가 어느 한 공장을 료해할데 대한 장군님의 과업을 집행하고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어인 일인가. 장군님의 안색이 어느때없이 어두우신게 아닌가. 가슴속에 이를 못할 불안이 잠마들었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의 안해가 뇌혈전이 재발되였다고, 여기 일은 우리에게 맡기고 먼저 평양에 돌아가라고 이르시였다. 어조는 담담하였지만 기색은 단호하시였다.

하지만 끼니마저 번지시며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뒤일을 다 맡기고 먼저 돌아갈수는 없었다.

그의 이런 내심을 읽으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동무가 먼저 혼자 갈리 없고 또 혼자 간다 해도 내가 마음을 놓을수 없다, 계획하였던 대상들을 빨리 돌아보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였다.

그의 가슴으로는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 온 가족의 운명을 다 맡기고 사는 행복의 파도가 끝없이 밀려들어 벅차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귀로에 올라 평양으로 달리는 렬차안에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줄곧 전사에게 마음이 쓸리시여 위로하고 격려해주시며 육친적인 사랑을 부어주시였다.

어느덧 렬차가 평양에 도착하였을 때는 새벽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해가 입원중인 그의 집사정을 헤아리시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하시였다.

당황해난 박송봉동지가 거듭 사양의 말씀을 올리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목을 이끌어 댁으로 데리고 가시였다. 그러시고는 간소하지만 함께 식사하자고 그를 식탁으로 이끄시였다.

박송봉동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치며 어린애처럼 소리내여 울었다.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 안겨사는 혁명전사들만이 흘릴수 있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눈물이였다.

《너무 걱정말고 어서 드시오. 벌써 몇끼를 번지였는데 속이 비면 탈이 날수 있소. 동무가 건강해야 앓고있는 안해도 반가와함께 아니요.》

못내 갈리신 장군님의 음성이 그의 귀전에서 울리였다.

《장군님, 그래서 그런게 아…닙니다.》

내 동무의 마음을 다 안다. 그러니 한술이라도 들라.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할게 아닌가. …

장군님께서도 전사도 끝내는 한술도 들지 못한 아침식사였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안해가 입원해있는 병원으로 전사의 등을 떠밀어주시였다.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치료해주는데 자기가 찾아간댔자 다른 보족한 수가 없다는 생각, 전사의 위치는 항상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한시바삐 수행하는 주로여야 한다는 신념으로 그는 곧장 사무실로 갔다.

그런데 잠시후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다급히 울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전화였다.

내가 생각한게 틀림없구만. 병원에 가라고 그만큼 부락하였는데 왜 가지 않고 도대체 무얼 하고있소. 그렇게 간곡히 부락하면 들어주는척이라도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엄한 질책이였지만 그 곡진한 진정에 전사의 심신은 막 녹아내리는것 같았다.

(아, 어버이장군님! 백천번 불러도 또 부르고싶은 우리 장군님!

과연 어떤 진정을 고이면 대체같은 그 사랑에 다소나마 보답하게 될것인가.)

심장에 불을 안은듯 한 그의 가슴에는 이런 불타는 맹세가 고패쳤다.

박송봉동지의 한생은 그날의 맹세를 사무치게 간직하고 열화같은 충정, 불굴의 노력으로 실천한 충신, 의리, 량심의 한생이였다.

행복에 눈물짓고 맹세속에 분발하여 마치 강변의 막돌이 쉬임없는 물결에 정갈하게 다듬어지듯 위대한 장군님의 충직하고 미더운 선군혁명동지로 성장한 값높은 생이였다.

이런 충신이였기에 졸지에 그를 잃은 우리 장군님께서는 억장이 무너지는것 같고 눈앞이 캄캄하시였다.

3살때에 연길대대 정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아버지 박길을, 5살때에는 지하혁명투쟁에 참가하였던 어머니마저 일제놈들에게 무참히 빼앗기고 거치른 이국땅에서 별의별 고생을 다한 박송봉.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조용하였지만 일단 일에 착수하면 무서운 집념인 전사, 금시라도 부르면 힘차게 대답하며 달려올것만 같은 사랑하는 동지,

너무도 일찍 부모를 잃고 혈육의 사랑을 모르고 산 전사여서인가, 늘 일감을 부여안고 일에 다붙여 단란한 휴식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전사여서인가 시련의 나날 그와 함께 헤치신 멀고먼 길에 아픈 추억을 얹으신 그이의 애석함은 형언할수 없으시였다.

《그는 지난 6년간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숱한 일감을 맡아가지고 한몸바쳐 일하였습니다. 그가 수행하던 과업을 누가 대신할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군을 잃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어려울 때 힘을 준 동무입니다.

박송봉동무만큼 나에게 충실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당의 훌륭한 아들이며 나의 가장 충직한 전우!

나의 6년동안의 혁명활동에서 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일군!

이것은 조국과 혁명, 당과 인민을 위하여 생의 흔적을 뚜렷이 남긴 충신의 한생의 총화인 동시에 혁명전사들이 죽어서도 떠나지 못할 위대한 동지의 추억의 세계에 깊이 뿌리내린 박송봉동지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최상최대의 평가였다.

* *

무릇 인생은 짧아도 사랑은 길다는 말이 있다.

우리 태 전사들의 고귀한 삶도 그 품에서 꽃펴났고 천만의 철의 대오를 일심으로 뭉쳐주는 사랑도 그 품에서 영원한 위대한 장군님의 품,

은혜로운 그 태양의 품에서 혁명전사들의 생이 빛나고 조국의 부강과 전진에 이바지한 전사들의 공적도 영원한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영원한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을 당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혁명가로 키워주시고 혁명적성장의 눈부신 경지를 개척하신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스승의 불멸의 업적이다.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기고 뜨거운 손길에 이끌리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법하게 태여나 시대의 절정에서 만민의 각광을 받는 삶을 빛내여가고있는것인가.

조선의 첫 세대 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한벌정신을 계승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로동당시대를 빛내인 당의 기초축성시기의 일군들과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강성국가의 초석을 억척같이 다진 일군들,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께서 자주 그 이름 외우시는 일군, 그이의 추억속에 나라의 국방력강화에 특출한 공적을 남긴 일군으로 영생하는 박송봉동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품에서 교양육성된 충신들의 빛나는 삶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혁명열과 투쟁열로 피를 끓이며 산악같이 떨쳐나선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일군들의 투쟁을 과감히 고무추동할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신 군중공작방법을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자

70일전투승리의 지름길—군중속으로!

황해남도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총정의 70일전투승리의 지름길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30여일동안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공작방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확증한 황해남도당위원회 사업은 그에 대한 훌륭한 대답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자면 우리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구현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는 70일전투의 성과적보장을 위한 근본열쇠의 하나를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혁신하는데서 찾고 여기에 큰 힘을 넣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구현하는것이였다.

도당일군들모두가 군중속으로!

도당위원회는 이런 요구를 제기하고 70일전투의 첫걸음부터 군중속으로, 들끓는 전투장으로 힘있게 내질었다.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의 편지를 전달받은 도당일군들이 옹진군에 나가 진행한 집중적인 정치사업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지난 시기에도 도당위원회는 협동농장들에 대한 집중정치사업을 자주 조직하였는데 그때마다 학습을 비롯한 준비를 잘하여 성과를 거두군 하였다. 그 좋은 경험을 살려 이번에도 학습전투를 조직하였는데 여기서 초점을 돈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지니신 군중공작방법을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이였다.

모든 도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절세위인들의 로작과 당정책학습을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이런 준비밑에 100여명의 도당일군들은 옹진군으로 달려나갔다. 만진, 천산, 정현농장들에 도착하자마자 도당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과 일도 같이하면서 격식과 틀이 없이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렸고 점심시간에는 그들의 집을 찾아 준비해온 물자도 안겨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면서 혈육의 정을 나누었다. 그 과정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키워주신 훌륭한 우리 인민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는 과정으로, 분조, 작업반, 농장들의 실태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으로 되였다.

도당위원회는 또한 일군들이 시, 군들에 내려가 지도사업을 할 때에도 리당위원회 사무실에 들려 실태를 료해하거나 시, 군들에서 종합해놓은 자료나 가지고 돌아오면 지난 시기의 사업방법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들끓는 포전에서, 농장원들의 가정들에서 참신한 정치사업을 진행하며 실태를 료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군중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70일전투를 시작한 도당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도당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섰다. 도당책임비서 박영호동무는 연안군 발산협동농장에 나가 농장원들과 함께 거름지게를 지고 일하면서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풀어주고 80여점의 뜨락또르부속품해결대책도 세워주면서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을 고무해주었다. 천태길, 조을일동무를 비롯한 도당일군들도 늘 전투현장에 나가 사업을 전개하기에 앞서 농장원들이 농사일에 전심전력하도록 조건보장사업을 선행시키군 하였다. 도당일군들부터가 이런 사업기풍을 발휘하니 시, 군의 당일군들은 물론 행정일군들의 일본새도 달라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 10일현재 도안의 6천여명의 일군들의 진정이 어린 158종에 5만여점의 생활필수품이 1만 수천세대의 농장원가정들에 들어갔다. 여기에 협동농장마다에 들어간 뜨락또르부속품, 소농기구, 비닐박막 등 각종 영농자재들까지 합치면 대단하다.

그뿐이 아니다. 신천군안의 1 500여명의 선동원들과 농장원들에 대한 종합검진과 치료대책을 세워준것을 비롯하여 농장원들을 위하는 일군들의 마음은 나날이 커갔다. 이런 나날속에 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70일전투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게 되였다.

또 하나의 좋은 점은 전투현장에서 궁정을 창조하고 즉시에 온 도에 일반화한것이다.

이런 실례가 있다. 언제인가 신천군에 나간 도당책임일군은 군당책임일군으로부터 도에서 파견된 탕지도소조성원이 우룡협동농장에서 제일 뒤떨어졌던 어느 한 작업반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잘하여 앞선 대렬에 들어서게 한 좋은 경험을 군적으로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였다. 일반화할 가치가 있었다.

온 도안의 모든 농촌당세포들에서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대한 포전학습을 하고 이어 당생활총화를 진행하도록 하니 실효는 컸다. 당원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당면한 영농공정별전투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기름사정으로 뜨락또르가동률이 떨어지고있을 때 벽성군에 파견된 탕지도소조성원이 부림소천대를 조직하도록 하여 봄갈이실적을 올린 좋은 경험이 일반화되여 도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봄갈이를 10일이나 앞당기게 한것, 신천군의 1 200여명의 선동원들의 선동활동경험을 시, 군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든것을 비롯하여 실례들은 많다.

도당일군들의 이런 일본새로 하여 지금 도적으로 자급비료생산 및 반출과 비닐박막을 비롯한 영농자재확보 그리고 뜨락또르와 양수설비수리가 절속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해주련철농기계공장에서는 당 제7차대회전까지 계획하였던 농기계생산을 3월 20일까지 끝냈다.

공업, 수산부문은 물론 중요대상건설전투장들에서도 기적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재령군과 강령군에서 큼직한 그릇우리양어장건설이 완공되고 20일만에 건설된 학생용가방생산기지들에서는 벌써 가방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재령광산에서는 24일만에, 은률광산에서는 33일만에 70일전투쇠돌생산목표를 돌파하였다.

도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업기풍을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여러차례에 걸쳐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게 되였다.

그렇다. 70일전투승리의 지름길은 군중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는데 있다.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실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 황해남도당위원회 사업은 이것을 다시금 힘있게 강조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장철범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고락을 함께 하며 찾은 일거리

군중은 어떤 일군을 좋아하는가. 혼시하며 하지나 들을 차리며 간부티를 내는 일군이 아니라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고락을 함께 하는 일군이다. 이런 일군을 대중은 무척 존경하고 진정으로 따르게 되는것이다.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에 대하여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는것, 이것이 높이 세운 70일전투목표를 점령하는데서 이곳 당위원회가 들어선 열쇠의 하나였다.

총정의 70일전투기록장의 갈피갈피에는 대중과 고락을 함께 하며 달려온 이곳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사랑과 헌신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지난 3월 14일 밤 천내탄광 충성갱에서의 야간전투에 뒤늦게 참가한 한 전투원이 있었다. 그가 바로 화상회의가 끝나자바람으로 달려온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재범동무였다.

작업복을 입은 그는 탄부들과 인차 어울렸다. 탄차를 함께 밀고나가는 책임일군, 작업의 쉴참이면 탄부들에게 담배도 권하고 그들의 가정형편도 알아보며 유쾌한 롱담으로 좌중에 웃음꽃을 피워올리는 그가 탄부들에게는 책임비서이기 전에 친구지간이나 혈육처럼 여겨졌다.

이렇게 갱속에서의 8시간이 흘러갔다. 야간전투는 승리적으로 결속되였으나 책임일군에게는 또 다른 일감이 기다리고있었다.

갱들의 목욕탕정상운영문제를 놓고 천내탄광 당, 행정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탄부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가 찾게 된 일거리였다. 책임일군은 탄부들의 스쳐지나는 말도 무심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되여 갱을 나서는 길로 일군들의 긴급협의회를 소집하였던것이다. 즉시에 목욕탕정상운영을 위한 해당한 조직사업을 하고서야 그는 천내탄광을 떠나 또 다른 전투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삼천탄광의 하양갱 막장이였다.

3월 15일 아침 9시, 하양갱의 막장에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책임일군의 주위에 모여든 탄부들의 손에는 주먹밥이 한덩이씩 쥐여져있었다.

《급하게 오다나니 넉넉치 못하구만. 그래도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 천하별맛이지.》하며 책임일군은 제 몫으로 남겨놓은 반덩이 주먹밥마저 쪼개여 나어린 굴진공의 손에 쥐여주는것이였다. 책임일군의 얼굴에는 웃음이 어렸고 탄부들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였다.

이날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근 6시간동안 책임일군과 하양갱의 탄부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굴진도 하고 버럭도 처리하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렸다. 물론 실적은 전날에 비할바없이 높았다.

그날 전투총화를 끝낸 책임비서는 갱의 초급일군들과 함께 막장을 나서는 길로 탄부들의 가정을 찾았다. 이것 역시 그날 탄부들과 함께 일하며 책임일군이 찾아낸 일거리였다.

그날 책임비서와 함께 지낸 일군들이 다시금 가슴깊이 새긴것이 있다.

우리 책임비서, 이런 친근한 부름은 바로 대중과 고락을 함께 하는 일군만이 받을수 있는 가장 값높은 칭호라는것을.

당책임일군의 실천적모범을 따라 모든 일군들이 분발해나섰다. 그 어느 전투장에 가보아도 일군들과 탄부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고락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련합기업소가 3월 석탄생산계획을 열흘이나 앞당겨 수행하게 된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한영철

정황이 백이면 방법도 백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군중공작방법을 구현하는데서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사업을 참신하게 하여 실효를 높이는것은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이런 측면에서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열생산1직장 초급당위원회의 정치사업방법은 매우 시사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사업에서 공식화된 방법이나 만능의 처방이란 있을수도 없습니다.》

지난 시기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수시로 달라지는 전투정황에 맞는 정치사업방법들을 능동적으로 들이대지 못하여 응당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했었다. 하지만 총정의 70일전투에 들어선 오늘의 사정은 다르다. 그 어떤 예측할수 없는 정황이 조성되여도 제때에 신통한 정치사업방법들을 들이대여 실효를 최대로 높이고있는것이다.

몇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얼마전 운영중에 있는 5호보이라 우측미루송풍기의 불량개소를 퇴치해야 할 긴급정황이 조성되였을 때였다. 뜻밖에 제기된 일이여서 보수작업반의 근무성원들은 당황해하였다. 한밤중이라 사람들을 불러낼수도 없었고 얼마 안되는 근무성원들의 힘으로 하자니 일감은 너무도 아름찼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현장에 나온 초급당일군은 제기된 정황과 로동자들의 심리를 순식간에 포착하고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그리고는 담배를 한대씩 나누어주며 정세이야기나 좀 하자고 말머리를 떼는것이였다.

모두가 의아해하였다. 한초한초가 귀중한 이때에 느닷없이 정세이야기라니 놀라지 않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초급당일군의 목소리가 올리기 시작했다. 최근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극도에 달한 발악적인 도발광기와 침략책동에 대한 이야기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에 대한 이야기,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자강력으로 70일전투의 새로운 영웅신화들을 창조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에 대한 이야기…

정세소식으로 시작된 초급당일군의 이야기는 이런 말로 끝났다.

《신심을 가지면 만리도 지척이고 신심이 없으면 지척도 천리가 된다고 했소. 우리모두 신념의 노래를 부르며 결사전을 벌립시다!》

이날밤의 전투는 그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해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결국 그 짧은 10분간의 신념교양사업이 2시간을 앞당긴셈이였다.

4호보이라의 승수관이 터져나가는 뜻밖의 정황이 생겼을 때에는 또 어떻게 됐는가.

용접작업은 화실안에서 진행하여야 하는것만큼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이였다.

바로 이때 몇명의 로동자들과 함께 화실안으로 뛰여든 사람이 있었다. 초급당일군이였다.

결에서 도와주며 힘을 주는 땀젖은 초급당일군의 모습을 보며 로동자들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예상밖의 짧은 시간안에 그들은 승수관의 원상복구를 끝냈다.

바로 어렵고 위험한 정황속에서의 가장 힘있는 정치사업은 이신작칙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작반의 운전공들속에 들어가서는 재미있는 유모아로 그들의 긴장감을 풀어주기도 하고 야간전투를 벌리는 보수작업반의 로동자들을 찾아가서는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를 안겨주며 고무해주는 초급당일군들의 정치사업방법은 어느것이나 다 정황과 사람들의 심리에 맞아 실효가 컸다.

이런 능동적인 정치사업방법은 그대로 높은 실적으로 이어져 70일전투에서 전례없던 성과를 안아왔다.

이들의 경험은 정치사업에서 고정적식화, 천편일률식을 깨고 정황이 백이면 방법도 백이라는 관점에 설 때 언제나 명중포화를 들이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윤명철

초급일군의 새 모습이 주는 교훈

평산군 청수리당위원회 사업에서

70일전투 이전과 오늘은 너무도 달랐다. 사업에서 맥을 추지 못하던 제5작업반장이 용을 썼다. 총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도 벌써 여러번 이름이 올랐다. 본인도 놀라울 정도였다.

(당조직이 아니였더라면…)

그가 뜨거움에 겨워 이런 생각을 더듬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70일전투에 진입하면 날 청산군 청수리당위원회에서는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전투진입에 앞서 리당비서 최영찬동무는 제5작업반장 김기호동무를 따로 만났다.

《우린 70일전투에서 동무를 크게 믿고있소. 리당에서 적극 밀어주겠으니 한번 본때있게 일해보시오.》

작업반장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의 작업반은 지난해 알곡생산계획수행에서 뒤꼬리를 차지하였었다. 올해농사차비실적도 뒤떨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리당일군에게는 속생각이 있었다. 제5작업반은 경지면적이 많은 단위였다. 따라서 이 작업반의 전투목표수행은 농장의 전투목표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였다. 또 뒤떨어진 이 작업반이 소리치며 일어나 전렬에 서게 되면 다른 작업반들의 승벽심을 자극하여 온 농장에 거세찬 경쟁열풍을 일으킬수 있었다.

문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보여주신 혁명적군중공작방법대로 초급일군인 작업반장이 핵심적역할, 기수적역할을 다하도록 당조직이 잘 이끌어주는데 있었다.

작업반장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70일전투의 첫걸음부터 힘있게 내질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앙양된 그의 열의가 높은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잘 이끌어주었다.

리당비서는 리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그의 작업반에 걸음을 자주 하였다. 현지에서 작업반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작업반장이 제기된 문제를 주동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방법과 묘술을 하나하나 배워주었다.

작업반장의 일본새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스스로 부림소를 한마리 맡아 영양판리를 해나가는 등 궂은일, 험한 일에 먼저 몸을 내대면서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농장원들의 생활상고충을 헤아리고 풀어주는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이런 사업기풍은 농장원들의 열의를 최대로 높여주었다.

70일전투가 시작된지 한주일 후부터는 제5작업반이 앞선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

이렇게 되니 다른 작업반초급일군들이 더욱더 분발하게 되였다. 결국 한 초급일군의 달라진 모습이 온 농장에 경쟁바람,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지핀셈으로 되였다.

이것은 리당일군들이 초급일군들과의 사업에서 보여준 혁신적인 사업기풍의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

초급일군들과의 사업에 품을 들여 그들이 기수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게 하면 하나가 열, 열이 백을 움직여 단위사업전반을 비약적으로 추켜세울수 있다는것, 이것이 바로 달라진 초급일군의 모습이 주는 교훈이다.

본사기자 리정수

호평받는 경제선동대

70일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는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가면 당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당초급선전일군들로 무어진 경제선동대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북과 하모니카를 비롯한 대중악기들과 붉은기를 가지고 탄부들이 일하는 막장에 들어가 그들과 어울려 일도 함께 하고 휴참을 리용하여 진행하는 이들의 경제선동은 말그대로 화선식이다.

경제선동대원들은 선동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대본을 만들고 선동자료도 준비하였다. 예술적기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었다.

득장청년탄광 3갱 채탄막장에서 경제선동의 첫 포성을 울린 이들은 명학탄광과 룡산탄광의 갱막장을 종횡무진하며 경제선동을 드세게 벌려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안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경제선동대원들을 언제나 손뼉이 기다린다. 그러니 이곳 련합기업소가 70일전투 시작부터 화력탄보장단위들중에서 가장 앞서나가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사기자

공장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교무추동하고있다 — 청진강재

승리자가 되도록 생산자대중을 오늘의 총진군에서 영예로움

대중을 기적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유능한 작전가, 실천가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일군들의 대렬이 날로 늘어나고있다.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도, 시, 군소재지들, 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성천군당 책임비서 최명수동무는 그 방도를 군중속에 들어가는데서 찾았다.

공장, 기업소, 인민반들에 나가 정치사업을 벌리는 과정에 그는 읍지구 아빠트와 공공건물들에 대한 개건공사를 짧은 기간에 와락 끝내기 위해 지구별, 인민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게 되였다.

군당책임비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공사지휘부를 조직하였으며 해당 일군들의 모임에서 경쟁단위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사회주의경쟁을 선포하였다. 읍지구에 전망도와 경쟁도표를 크게 게시하고 긍정자료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도록 하였으며 명절에는 경쟁단위별체육경기도 조직하여 군중의 열의를 고조시켰다.

자신이 직접 앞채를 메고나섰다. 경쟁에서 제일 뒤떨어진 인민반에 나간 그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활차와 발판이 부족하여 애를 먹고있다는것을 알고 제때에 해결해주었다.

군당책임비서의 모범을 따라 일군들모두가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황에 맞게 정치사업을 벌리고 절린 문제도 풀어준 결과 지난해 5월까지 150여동의 아빠트와 30여동의 공공건물들이 모두 개건되였다.

군소재지의 전변만이 아니다. 지난해 군에서 20여㎞의 제방을 보수하여 5정보의 토지를 복구하고 수백정보의 토지를 보호할수 있게 된것도, 검제때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국가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할수 있게 된것도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고 정신력을 발동시킨 결과에 이룩된 성과들이다.

일군의 위치—화선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미는 화선형의 일군, 이것이 득장청년탄광 지배인 전학철동무에 대한 대중의 평가이다.

당에서 화력발전소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장할데 대하여 호소하였을 때였다.

탄부들속에 들어가 방도를 찾는 과정에 수십년전에 침수된 갱을 복구하면 수십만의 예비탄말을 마련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배인은 이 문제를 일군들의 토의에 붙였다. 일부 일군들은 작업조건이 불리하다고 하면서 주저하였다.

그러나 지배인의 립장은 명백하였다. 지금 당에서는 결사전을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는데 앉아서 조건타말만 하면 되겠는가. …

그의 헌신적인 사업기풍에 의하여 득장동과 보업동지역 3천여세대에 공급할 물문제가 풀리였고 새로 건설한 2층짜리 축사에서 생산된 고기와 알이 탄부들과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해주고있다.

화선지휘관의 정치사업은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지난해 탄광은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성적인 생산총화에서 1등의 영예를 지녀냈다.

령도업적옹호고수의 기본열쇠

당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철저히 옹호고수해나가는데서 서해갑문사업소 초급당비서 리명우동무가 틀어쥔 중요한 열쇠는 무엇인가.

지난해 이곳 당세포들에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업소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담당한 당세포들에 나간 초급당위원들은 종업원들속에서 제기되는 창발적의견들을 구체적으로 종합하고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나갔다.

초급당비서가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종업원들과 함께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새로 꾸리면서 그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문헌을 더 정중히 모시기 위한 방도를 집체적토의끝에 찾아내여 실천에 구현하였다.

갑문이 건설되여 30년이 되여오고 기능공들이 많이 교체되는 조건에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그는 종업원들을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 입학시켜 공부하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보급실을 적극 리용하여 모두가 갑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정통하도록 당적으로 적극 떠밀어주었다.

초급당비서는 갑문원에 식당을 꾸려 매일 점심식사를 보장하고 청년작업반 일군들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 과학기술보급실 등 20여개 대상이 훌륭히 꾸려져 사업소가 명도업적단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중요한 비결은 바로 대중발동을 기본열쇠로 틀어쥔 당일군의 사업방법론에 있다.

집체적지혜발동과 질제고

온성사람들은 자기 고장에서 생산되는 간장, 된장이 제일이라고 자랑한다. 여기에는 온성군장공장 지배인 김금철동무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다.

언제인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간장, 된장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김금철동무는 종업원들과 마주앉았다. 격식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그는 일부 로동자들이 기초식품생산의 기술적특성을 잘 모르는데로부터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있다는것을 포착하였다.

그는 자기가 먼저 기술서적들을 탐독하면서 매주 진행하는 기술학습에 출연하여 종업원들에게 생산공정의 기술적특성을 깊이 인식시키였다. 많은 종업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킴으로써 종업원의 60%가 기사, 기능공의 자격을 갖추게 하였다.

곡자식의 무균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동조종체계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그는 적극 지지해주며 발벗고나섰다. 기술자들이 거듭되는 실패에 주저앉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필요한 자료들도 가져다주면서 이끌어주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동조종체계가 도입되고 기초식품의 질은 훨씬 높아졌다.

생산정상화와 질제고를 위해 바치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는 끝이 없었다. 열판리공들이 보이라의 연소률을 95%로 높일수 있게 한 사람도, 종업원들과 함께 땡산군에 있는 갱목생산사업소에 찾아가 전투를 벌려 많은 동발목을 자체로 해결해온 사람도 바로 지배인이였다.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

4년전 봄 어느 한 산발을 오르내리며 샘줄기를 찾는 일군이 있었다. 금야군 구룡리당비서 김홍국동무였다.

며칠만에 드디여 수질이 좋은 물원천을 찾아낸 그의 땀젖은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실리였다. 수십년전에 놓인 수도관이 낡아진데다가 전기사정까지 어려워지면서 농장원들의 살림집에 먹는물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오래동안 고심해온 그였다.

지체없이 공사가 시작되였다.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뒤고 또 뛴 결과 2년만에 8.3㎞의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가 완공되였다. 500여세대에 수도물이 흘러들던 날 로동당만세를 부르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김홍국동무는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마음속절의를 다졌다.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만이 아니다. 지난 2년간 새로 건설한 24세대의 살림집에도, 농장원들의 식생활에 큰 보탬을 주는 버섯생산기지와 남새온실에도 인민을 하늘처럼 여김에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좌우명으로 새긴 리당일군의 헌신이 비껴있다.

가정사정으로 우울하게 생활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던 한 농장원을 자주 만나 친혈육의 심정으로 고충을 풀어주고 이끌어주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한 당일군, 농장원들의 가정을 수시로 찾아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 앓는 농장원에게는 귀한 약재를 구해주면서 친어머니의 정을 기울이는 당일군을 농장원들은 우리 리당비서라 부르며 따른다.

언제나 농장원들속에 있으면서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고 사랑을 기울이는 리당비서의 진정은 대중을 발동하는 명약이 되였다. 지난해 농장은 국가알곡생산계획을 106%로 넘쳐 수행하였다.

김홍국동무의 사업은 보여주고있다. 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기울이는 일군을 대중은 따르고 존경하며 그런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당정책이 철저히 관철된다는것을.

* *

일이 잘되는 단위들에는 어디라없이 우리 당이 바라는 아전형의 지휘판, 인민의 충복들이 있다. 남포항 항장 박준호, 신의주화장품공장 지배인 김혜영, 강계고려약가공공장 지배인 김명남, 원산통신재봉공장 지배인 김진하, 혜산신발공장 초급당비서 김명호, 안악군판개판리소 지배인 안대용, 수양산은하피복공장 지배인 리재석, 서흥군 읍협동농장 초급당비서 곽강철동무들이 바로 그런 일군들이다.

최근 당에서는 70일전투에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신작칙할 때,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고 사랑과 정으로 떠밀어줄 때 70일전투에서 만리마시대의 시대대표정신이 끊임없이 창조될것이며 강성국가건설에서는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날것이다.

본사기자 김향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집집의 문을 두드리는 정다운 소리

선교구역공업품종합상점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미담을 두고

얼마전 선교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에게로 류다른 편지 한통이 왔다. 보내는 사람은 산업2동 주민일동으로 되여 있었다.

주민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널리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미담의 주인공은 영제전재상점 점장 박세복동무였다.

편지를 쓰지 않고서는 견딜수 없어 펜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비단 산업2동의 주민들만이 아니였다. 편지를 쓴 사람들의 직업과 사는 곳은 서로 다르지만 그들은 누구나 똑같은 청원을 하였다. 선교구역공업품종합상점 일군들과 봉사자들을 높이 자랑해달라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하고 편리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자면 봉사혁명의 직접적담당자인 봉사일군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봉사성을 높여야 합니다.》

선교구역공업품종합상점에는 10여개의 상점들이 있다. 담당한 동주민들의 구성상태며 살림살이형편을 환히 알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호평은 70일전투기간에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구역의 어느 동에서나 늦은 퇴근시간이면 집집의 문을 두드리는 상점판매원들의 모습을 례사롭게 볼수 있다. 달마다 주민세대들에 공급되는 생활필수품들을 손수레에 가득 싣고 그들은 밤늦게까지 한세대라도 빠짐세라 이동봉사의 길을 이어간다. 주민들이 그들을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이란 문앞에서 상품을 공급받고 상품공급대장에 도장을 찍는것뿐이다.

천리마시대 다기대운동선구자의 한사람이였던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옛 직포공은 지난 70일전투때에도 봉사자들이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서 봉사해주군 하였다고, 젊은 시절 그때처럼 다시 일하고싶은 마음이 북받친다며 조용히 눈굽을 적시였다.

《판매원들이 문앞에까지 찾아왔구만!》

사회주의분배가 더욱 꽃펴난다고, 일을 더 많이 하겠다며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가슴에 안고 이동봉사, 주문봉사의 길을 이어갈 때면 봉사자들의 가슴은 저도모르게 벅차오른다.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는 봉사자들인 그들도 저녁시간이 누구보다 바쁘고 귀중한 가정주부들이다. 그들중에는 애기어머니도 있고 군인가족도 있으며 앓는 자식을 돌봐야 할 어머니도 있다. 그러나 남모르는 그 힘겨움과 아픔을 그들은 인민들의 기쁨밭에 묻는다. 그 기쁨이 소중해서, 주민들의 진정넘친 인사를 때없이 받는 안해, 어머니의 그 모습이 긍지스러워서 봉사자들의 남편들도 자식들도 말없이 부엌일을 맡아하군 한다.

이동봉사의 나날에 이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집집의 문만을 두드리지 않았다.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 떨쳐나선 주민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위훈과 혁신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동메지구의 유치원과 락아소어린이들에게 고운 뜨개모자며 아동치마저고리와 아동옷들을 몸에 꼭 맞게 정성껏 마련하여 안겨준 동메공업품상점 점장 박경희, 판매원 김혜영동무들의 지성은 어머니들의 눈시울을 얼마나 뜨겁게 하였고 로병들과 영예군인, 전사자가족들과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일하는 가정세대들을 먼저 찾아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며 누가 알아주건말건 발이 닳도록 발걸을 걷는 룡곡공업품상점, 학생옷상점, 신발상점, 산업공업품상점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소행은 또 얼마나 동주민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던가.

3.8국제부녀절을 맞는 구역안의 녀성로병들과 영웅들, 녀성과학자들과 교원들에게 제일먼저 축하의 인사를 안고 찾아온 선교구역공업품종합상점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을 뜻밖에 맞이한 남편들은 목이 딱 메여 《고맙습니다.》 하고는 더 다른 말을 잇지 못하였다고 한다.

우리 구역주민이기 전에 한집안식솔이라는 이곳 일군들과 봉사자들의 사심없는 진정, 헌신적복무정신은 머지않아 조국보위초소에 서게 될 남신1동의 세쌍둥이들의 가슴속에도 뜨겁게 새겨졌고 늘 집떠나 사는 아버지와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를 대신하여준 고마운 어머니들을 잊지 못하는 철부지소년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간직되였다.

홀몸으로 두 손자를 키우는 무진1동 61인민반의 김영희할머니는 남다른 가정형편을 헤아려 친딸처럼 따뜻한 정을 기울여준 무진공업품상점의 리용숙동무를 비롯한 판매원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두고 이처럼 뜨거운 인간미를 지닌 봉사자들앞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선교구역공업품종합상점의 초급일군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나는 오늘 인민을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하였는가?》라는 글이 씌어진 수첩이 있다. 주민들을 위한 그들의 하루하루는 이 수첩에 기록된다.

상점일군들인 제대군관 조혜순, 리숙정동무들로부터 시작된 이 일은 오늘 이곳 상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모두를 주민들이 사랑하는 《우리 점장》, 《우리 판매원》으로 되게 하였으며 집단을 더 큰 하나로 뭉치게 하였다.

70일전투기록장을 번지며 초급당일군인 리숙정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주민들을 위한 이동봉사로 70일전투철야진군의 첫걸음을 뗄 때에는 이렇게 모두가 미룡의 주인공들이 될줄 몰랐습니다. 인민들과 더 가까와지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멋에 우리 봉사자들의 사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사기자 조 향 선

샘물에 비낀 복무자의 량심

은파군 구련리에서

구련리는 읍에서 200여리나 떨어진 농촌마을이다. 이 마을을 읍내주민들은 물론 온 군이 부러워하고있다.

얼마전 이 마을에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가 완공되여 주민들이 집에 앉아서도 좋은 샘물을 마실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어느날이였다. 군당책임일군의 방에서는 긴급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다.

안건은 구련리의 먹는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였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3월 구련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촌수도화를 빨리 완성하여 녀인들이 물동이를 이고다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후 온 나라의 농촌수도화와 더불어 구련리에서도 물동이가 없어지고 주민들이 수도물을 마실수 있게 되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시기에 양수기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다보니 도중도중 새는 부위도 많이 생겨 주민들이 가끔 불편을 느끼고있었다.

군당책임일군이 일어서서 말했다.

이 문제는 수령의 유훈관철전이라고, 이미 실현된 농촌수도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라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라고…

책임일군은 구련리의 수도관을 대담하게 새것으로 교체하고 샘줄기를 찾아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를 완공하자고 그루를 박아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일군들은 놀랐다. 수도관은 어디서 구하고 세멘트를 비롯한 공사자재들은 어디서 해결하며 또 눈이 덮여있는데 샘줄기는 어떻게 찾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득 실린 눈빛들이였다.

그들의 마음을 읽어본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에게 부족되는것은 물원천이나 자재가 아니라 인민성이라고, 인민들이 먹는물문제로 불편을 겪고있는것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그런 일군이 어디에 필요하겠는가고.

군에 할 일은 많았지만 먹는 물문제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일군들을 불러일으켰다.

다음날부터 공사가 시작되였다. 군당책임일군을 비롯한 일군들은 부족되는 자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발창이 닳도록 뛰여다녔고 샘줄기를 찾아 눈덮인 산을 몇번이나 오르내렸다.

한번은 입술이 부르트고 눈에 피발이 선 군당책임일군의 모습을 보기 민망스러운듯 한 일군이 이렇게 말했다.

구련리주민들은 샘물이 아니라도 먹는물이면 족해하겠는데 괜한 고생을 사서 하는것 같다고.

그러는 일군을 바라보며 그는 말했다. 물론 샘물을 먹지 못한다고 의견을 부리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샘줄기가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먼 후날 구련리사람들의 눈빛을 어떻게 마주볼수 있겠는가.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여운은 너무도 컸다. 드디여 그들은 샘줄기를 찾았다. 땅속에서 펑펑 솟구쳐오르는 샘물은 인민을 위하는 그들의 순결한 량심이 렌뜻 티없이 맑고 깨끗했다.

마을에서 2km 떨어진 산골짜기에서부터 수도관을 놓이는 공사와 함께 물탕크를 건설하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였다.

공사가 완공된것은 70일전투가 시작된지 며칠후인 지난 2월 어느날이였다.

우리는 여기서 공사 전기간의 투쟁모습을 다 이야기할수는 없다. 다만 공사가 완공된 그날 마을사람들이 눈굽을 적시며 로동당만세를 높이 불렀다는것만은 이야기하고싶다.

70일전투가 시작되여 온 나라를 놀래우며 창조되고있는 거창한 위훈에 대비할 때 이것은 너무도 작고 평범한 일이다. 그러나 인민은 이 작은것에서 참된 복무자, 심부름군의 량심이라는 큰것을 보고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물을 마시며 말하군 한다. 이 수도관으로 흐르는것은 물이 아니라 일군들의 땀이라고.

신 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새로 생겨난 총화항목

70일전투에 떨쳐나선 경성애자공장 일군들에게는 류다른 총화항목이 있다.

그것은 로동자들을 위해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하는것이다.

물론 이 총화항목은 량심의 총화이다. 하기에 일군들은 누구나 아침마다 현장으로 나가면서 로동자들을 위해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을 할것인가를 생각하군 한다.

밤새워 일하는 로동자들을 위해 집에서 푸짐한 식사를 마련해가지고 현장에 달려나온 일, 앓고있는 종업원에게 약봉지를 쥐여주면서 집으로 등을 떠밀어보내고 자기가 대신 그 일을 한것을 비롯하여 하루에만도 로동자들을 위한 좋은 일이 수많이 진행되고있다.

총화항목이 생겨난 후부터 생산실적이 높아가고 그 어디서나 기적이 창조되고있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로동자들을 위해 수많은 필수품들을 마련한 주조직장 직장장 리덕철동무를 비롯하여 많은 일군들이 로동자들을 위한 좋은 일을 너도나도 한가지씩 찾아하고있다.

하루전투실적과 함께 새로 생겨난 총화항목은 로동자들을 대하는 일군들의 관점과 립장을 총화하는 항목이였다.

본사기자

어제날의 처녀기중기운전공들

70일전투가 시작되던 그무렵 천리마구역 보봉동에 사는 조경순동무는 충정의 전투기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분괴압연직장 천정기중기를 담당하여 운전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일군들의 감동은 컸다. 2009년에 있은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때에도 밤이면 자기가 처녀시절에 맡았던 기중기에 올라 압연강재증산에 한몫 단단히 하던 그였다.

이런 그가 또다시 70일전투에서 교대운전공이 될것을 열렬히 탄원해나선것이였다.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로동계급이 70일전투에서 철강재증산으로 당을 받들어 위훈자, 승리자로 영예떨치려고 부글부글 끓는데 저도 한몫 하고싶었을뿐입니다.》

조경순동무가 이제날 처녀기중기운전공시절처럼 자기의 심정을 터놓던 그무렵 대안구역 대안동에서 사는 리영금동무도 대안중기제련합기업소 조축기직장에서 교대기중기운전공이 되여 70일전투의 날과 날들을 위훈으로 수놓아갈것을 탄원해나섰다. 그도 처녀시절 기중기운전공으로 발전설비생산에서 큰 몫을 맡아해제끼던 어제날의 혁신자였다.

기중기운전공으로 보람찬 로동의 날과 날들을 창조와 위훈으로 수놓아가던 그때처럼 당이 부른 70일전투에서 처녀시절처럼 불같은 열정과 창성한 투지를 남김없이 떨쳐갈 결의에 넘쳐있는 그들에게 누구나 아낌없는 찬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선전화가 나왔다

【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선전화가 나왔다.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청사와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투쟁력사가 어려있는 주체의 붉은 당기가 숭엄하게 형상되여있는 선전화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경축》이라는 글발이 씌어져있다.

또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천만군민의 마음을 담은 축하의 꽃다발이 선전화에 그려져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새로 창작하여 내놓은 선전화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상을 놀랬다놓는 기적을 련이어 창조하여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을 새긴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안고 당 제7차대회장으로 뗏뗏이 들어서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할것이다.

뜻도 숨결도 하나가 되여

70일전투의 불길 세차게 타오르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많은 부양가족들이 가족소대를 묶고 철야진군을 다그치는 남편들과 어깨겯고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70일전투가 시작된지 10일남짓한 사이에만도 전국적으로 6 100여명의 부양가족들이 남편들과 마음도 발걸음도 함께하며 해당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290여개의 가족소대를 묶고 철아진군대오에 뛰여들어 혁명적이며 열정적인 조선녀성의 기개를 지광스럽게 떨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 일군, 종업원들의 안해들은 남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으로 받들고 70일전투의 첫날부터 철아진군을 다그치고있는데 부양가족들이라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고 하면서 당조직에 가족중대를 조직할것을 제기해나섰다.

6개 소대로 구성된 가족중대를 무은 230여명의 강철직장 일군, 종업원들의 안해들은 매일 식사와 장갑 등 후방물자들을 마련해가지고 생산현장에서 남편들을 도와 설비판리와 보수도 깐지게 하고 휴식시간이면 《가리라 백두산으로》와 《강선의 노을》을 비롯한 노래들도 불러주면서 일벌, 주벌강철생산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남양탄광 김혁돌격대 대원들의 안해들과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학포탄광 3갱 탄부들의 안해들 역시 남편들과 어깨겯고 석탄증산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나가는 70일전투참전자로 위훈떨치자고 하면서 매일 후방사업과 로력적지원을 힘있게 벌려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허천군 만덕로동자구 7명의 부양가족들은 온 나라가 철야진군을 벌리고있는 오늘 처녀시절 선반공을 하던 우리도 남편들을 도와 70일전투에서 한몫하자고 하면서 매일 이곳 광산 공무직장 전투현장에 나가 부속품가공에 지혜와 열정을 바치고있으며 천내리세멘트공장 일군, 종업원들의 안해들은 당파름와 단풀, 장갑 등 후방물자들을 준비해가지고 매일 현장에 나가 세멘트생산자들의 일손을 힘껏 도와주고 휴식시간에는 화선식경제선동활동을 벌려 그들을 70일전투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회천시당 일군들의 안해들 20여명은 학생들에게 공급할 때낭식가방생산전투를 벌리고있는 전투장을 찾아가 가방생산자들과 함께 재봉기도 돌리고 자재운반과 선별작업도 하고있으며 점심시간에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성의껏 마련한 음식들을 안겨주고 작업의 쉴참에는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경제선동활동을 벌리고있다.

신도군 황금정리에서 사는 부양가족들은 가족소대를 묶고 황금평협동농장에 활장대 2만 8 000여대, 자금비료 60여t을 마련해주고 많은 소농기구들을 수리해주어 농장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개천철도국 개천철길대 자작철길소대원들의 안해들이 충정의 70일전투가 시작되던 그때 가족소대를 묶고 날마다 남편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철길보수작업을 진행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철도성적으로 870여명의 철도종업원 안해들이 70여개의 가족소대를 묶고 남편들과 어깨를 겯고 충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121호림업련합기업소에서는 상창림산사업소 통나무생산자들의 안해들이 가족소대를 묶고 채벌장의 산지함숙에서 숙식하면서 베여놓은 통나무의 가지자르기와 통나무운반을 도와주고 여러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전투를 벌리는 남편들에게 후방사업을 본때있게 진행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련합기업소아래 8개 림산사업소 종업원들의 안해들 750여명이 30여개의 가족소대를 묶고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남편들과 함께 전투좌지를 차지하고 충정의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 치 곤

대학생과학탐구상수여모임 진행

【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높이 받들고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들에게 대학생과학탐구상이 수여되였다. 전국각지의 대학생들은 20대, 30대에 세계를 놀래우는 과학자, 박사가 될 포부를 안고 지식의 탑을 높이 쌓으며 학생과학연구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경제강국건설과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많은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대학생과학탐구상수여모임이 2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일군들, 대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지난 기간 청년과학기술행군에 떨쳐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높이 발휘하여 학과학습에서 모범을 보이였으며 과학탐구활동에서 성과를 이룩한 1 000여명의 대학생들에게 대학생과학탐구상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이어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심혁철, 리수덕원산교원대학 학생 윤금정, 청진광산금속대학 학생 최수웅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불꽃튀는 학습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리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과학탐구의 전례없는 성과로 맞이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마두산혁명전적지답사 진행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70일전투가 파갈히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직맹원군들과 직맹원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이 29일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마두산혁명전적지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한 항일혁명투사들과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신념이 뜨겁게 맥동치고있다.

구호문헌보존교양실에서 답사자들은 항일대전의 나날 백두산호랑이로 명성떨치신 청년장군의 절출한 위인상이 빛발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명제를 우리르며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백두의 전설적령장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가슴깊이 되새기였다.

전경사판앞에서 안주지구 비밀근거지에 대한 해설을 들은 다음 이 일대에서 발굴된 구호문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백옥같은 마음으로 백두산3대 장군을 충정다해 받들어모신 투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뜨겁게 새겨안았다.

마두산에 오른 답사자들은 혁명선렬들의 투쟁정신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신념의 글발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앞에서 오래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그들은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 등의 구호문헌들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삶을 깊이 체득하였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투사들의 다함없는 신뢰심을 보여주는 《천출천하명인 김일성장군 백두녀장 김정숙 그들의 계승인 백두광명성 조선의 3대통운만세》, 《백두산에 김일성장군의 계승인 백두광명성 탄생》과 같은 구호문헌들은 답사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답사자들은 《조선독립대장 김대장 받들어 조국광복 성취하자》, 《조선청년들 김일성빨찌산 최후결전에 무장봉기로 호응하자》, 《천만대군 거느린 김일성장군 받들자》 등의 구호문헌들과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이 리용하던 샘물터와 숙영지자리들도 돌아보았다.

마두산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하여 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휘몰아쳐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불굴의 혁명정신을 피끓는 가슴마다에 지니고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방글라데슈독립 45돐에 즈음한 기념집회 진행

방글라데슈독립 45돐에 즈음한 기념집회가 28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방글라데슈기발이 드리워져있는 집회장에는 《방글라데슈독립 45돐을 맞는 방글라데슈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인민과 방글라데슈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 만세!》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조선방글라데슈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친선협회 성원들과 시내근로자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축하연설에 이어 조선방글라데슈친선협회의 명의로 된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에 보내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잠비아에 갔던 최고인민회의대표단 귀국

잠비아에서 진행된 국제의회동맹 제134차총회에 참가하였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 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29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리수용외무상 따쓰통신사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

리수용외무상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 정세에 대처한 우리의 립장과 관련하여 29일 로씨야 따쓰통신사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은 조선반도정세격화와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를 산생시킨 근원이다.

미국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기 꼭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핵위협을 끈질기게 가해왔으며 핵선제공격을 정책화하고 그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왔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우리에게 핵공격을 가하려고 획책하였으며 일찌기 1950년대부터 남조선에 방대한 핵무기를 끌어들이며 우리를 위협공갈하였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되고있다.

오바마행정부가 2010년 4월 이른바 핵불사용대상에서 우리를 제외시킨 사실과 지금도 수많은 핵공격장비들을 남조선에 들이밀어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공언하고있는것이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전략핵타격수단들을 조선반도지역에 총집중하여 우리를 겨냥한 핵공격연습을 벌리고있는것과 같은 심각하고 현실적인 핵위협을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시기에도 받아본적이 없다.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미국에 핵으로 맞서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미국이 한사코 핵으로 우리를 압살하려 하였기때문에 이에 대처하여 우리는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위해 불가피하게 핵보유의 길을 택하게 되였던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핵보유에로 추동하고 떠밀어준 장본인이며 지난 수십년간 매일과 같이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은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만든 기본요인이였다.

세계유일의 핵무기사용국,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항시적인 핵위협과 전쟁도발책동에 맞서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핵무력강화에 의한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것뿐이다.

우리에게는 미국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해줄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

우리는 탄도로케트에 장착할수 있게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를 실물로 공개하였으며 대륙간탄도로케트의 대기권재돌입능력도 보여주었다.

우리는 미국의 무분별한 적대시책동과 로골적인 핵위협에 대처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적방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앞으로 우리 핵무력의 발전속도는 미국의 행동여하와 우리를 보는 시각의 변화에 따라 좌우될것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전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력대 최대규모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수십만의 방대한 무력과 각종 핵전략자산들이 동원된 이번 전쟁연습은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꿈꾼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참수작전》까지 실행하는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감행되고있다.

미국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북침전쟁의 현실성을 최종점토하는것이라는것을 거리낌없이 밝힘으로써 지금까지 겉으로나마 《연례적》이며 《방어적》이라고 정당화하던 기만적이고 파렴치한 간판마저 완전히 내던지였다.

미국이 우리를 겨냥한 모든 종류의 군사적기습타격을 다 가상한 실동훈련을 벌리면서 선제타격을 기정사실화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것이 현 조선반도정세이다.

우리가 눈앞에 닥쳐온 미국의 침략위협을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광기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의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하였으며 단호한 핵선제공격의지를 밝히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조선반도는 열핵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지금 조선반도에 조성된 극도로 첨예한 정세는 전례없는것이며 이에 대하여 귀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커다란 우려와 불안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막고 전쟁위협을 제거하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나타난 현상만 볼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바로 보고 근원치료를 위한 대책부터 강구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모든 나라들은 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돌리고 우리를 1차적인 공격목표로 삼고있는 미국의 책동을 각성있게 대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응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주체105(2016)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총회—주체105(2016)년에 29일에 진행되였다.

올림픽위원회 위원들, 체육부문과 련관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주체104(201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사업총화와 주체105(2016)년 사업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인 리종무 체육상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려는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지난해에 제7차 전국체육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여 체육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이 안겨준 필승의 신심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리 식의 경기전법과 전술로 세계적인 강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영예를 떨침으로써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었으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말하였다.

총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나라의 체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매국역적 박근혜패당에게 차례질것은 최후멸망의 무덤뿐

원쑤의 아성에 불벼락을 들씌울것이다

내외호전광들이 멸망을 재촉하는 도박판의 종막을 올리고있다. 원쑤들이 어리석은 야망에 사로잡혀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리며 《집무실정밀타격훈련》이라는것까지 벌려놓은것은 림종을 앞둔자들의 마지막몸부림뿐이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의 화살표는 청와대로, 백악관으로 죽죽 그어졌다.

남반부작전지대안의 주요타격대상들을 사정권안에 두고있는 우리의 위력한 신형대구경방사포가 실전배비를 앞두고 또다시 노호의 불뢰성을 터쳤다. 남반부정정에 투입된 우리의 적후부대들은 임의의 시각에 청와대를 비롯한 적들의 주요대상들을 맹호처럼 단숨에 잡고앉아 박근혜역적패당을 죽탕쳐버릴 폭풍작전, 번개작전에 진입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 청와대와 서울시안의 반동통치기관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 장거리포병대집중화력타격연습은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리고 치떨리는 도발망동을 부린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에게 가장 참혹한 멸망을 안기려는 백두산용대의 위력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위대한 백두령장을 모시고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성전에서의 필승을 확신하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은 탁월한 령장들을 높이 모시고 백두의 전범으로 필승의 력사를 빛내여온 무적의 강군이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의 신출귀몰하고 령활무쌍한 유격전법앞에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가 녹아났다. 일제의 《대동아공영권》망상은 《창해일속》이라고 떠들던 조선인민혁명군앞에 무릎을 꿇은 100만 관동군의 치욕과 함께 야스구니진자에 처박혔다.

세인이 보통파 원자탄의 대결이라고 평하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을 높이 받들고 백두의 전법으로 싸워 미제의 《무기만능론》에 종지부를 찍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인민군대가 적들의 불의의 침공을 물리치고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한것도 기성의 군사공식으로는 계산할수 없는 주체전법의 쾌승이였다. 미제의 《상승사단》을 완전히 괴멸시킨 대전해방전투는 세계가 경탄한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이였다. 주문진앞바다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이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파한것은 적들마저도 《전투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비명을 지른 주체전법의 자랑찬 승리였다.

주체의 군사전법은 이렇게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여버렸다. 미제의 그 어떤 군사적공세도 인민군대의 주체전법앞에서는 숙명으로 정해진 아메리카제국의 파멸의 운명을 돌려세울수 없었다. 《포로가 된 떤》으로부터 시작하여 《〈무덤장군〉 스미스》, 《황천객이 된 워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맥아더》로 이어져온 미제의 패전장군들의 수치는 마침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은 《골라크의 눈물》로 절정에 달했다.

지난 수십년간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고 전대미문의 정치경제적봉쇄와 압력, 군사적위협공갈에 악랄하게 매달려왔다. 하지만 위대한 선군령장의 탁월한 령도를 받는 주체조선의 신묘한 전략전술앞에 참패를 면치 못하였다.

특히 미국은 지난 세기 90년대에 반공화국혁소동을 벌리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로 몰아갔다. 하지만 백두의 천출명장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단호한 기상과 준전시상태의 선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 등 우리 공화국의 련속적인 초강경공세앞에 기겁하여 대통령의 담보서한을 바치고야말았다.

국제사회에는 주체전법은 《동방조선만이 가지고있는 백승의 특허무기》라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대를 이어 만고절세의 명장들을 모시여 백승의 전통을 끊임없이 빛내이는 우리 혁명무력은 지금 반미대결전에서의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원쑤격멸의 의지를 활화산처럼 터치고있다.

최고수뇌부의 백두산악파도 같은 담력과 백두의 칼바람파도 같은 공격기상을 그대로 안은 백두산혁명강군은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가차없이 불마당질해버릴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먼저 냅다 치는것이 백두산대국의 핵선제타격방식이다. 우리의 선제공격작전이 일단 개시되면 그것은 세계가 알지 못하는 기상천외한 주체적전쟁방식으로 불이 번쩍 나게 종결될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체의 군사전략과 전법을 믿음직하게 답보하는 주체무기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임의의 적장갑기재도 삶은 호박처럼 박살낼수 있는 반땅크을도무기는 우리 당의 유격전에 관한 군사전략사상이 집대성되여있고 무장장비정밀화, 경량화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반영된 주체무기이다. 신형대구경방사포는 남반부작전지대안의 적대상물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정밀공격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첨단무기체계로서의 위력을 립증하였다.

태평양상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은 물론 대양건너에 도사린 악의 소굴들을 조준경안에 집어넣고있는 우리 전략군의 초정밀전략타격수단들의 공격은 그 무엇으로도 막아낼수 없다.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우리 식의 주체무기들로 무장된 백두산혁명강군의 강위력한 타격을 막아낼 힘은 어디에도 없다. 그놈에서는 누구든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그 존재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선언해나선 정의의 보복전은 성스러운 수령결사옹위전, 자비를 모르는 원쑤격멸전이다.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어째볼 흉심밑에 그 무슨 《공포무기의 총출동》이니, 악명높은 특수작전병력의 《대대적인 투입》이니 하며 내외호전광들이 벌려놓은 이번 북침합동군사연습은 그 성격에 있어서 천하무도이며 실행방식에 있어서 사상 최악이다.

목숨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최고존엄과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증오심과 복수열기는 무섭게 치솟고있다.

미제와 괴뢰역적무리의 최후멸망의 시각이 다가오고있다.

만약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이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물텀벙술텀벙 하며 마지막몸부림으로 도전해나온다면 백두산혁명강군은 무자비한 보복의 불벼락으로 원쑤들의 아성을 재가루만 날리는 죽음의 쑥대밭으로 만들고 남반부를 평정해버릴것이다.

리 효 진

청맹과니들의 가련한 몸부림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는 말이 있다. 미국상전의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설레발을 치고있는 괴뢰역적패당의 꼬락서니가 신통히도 망둥이를 본따는 꼴뚜기를 방불케 한다.

얼마전 괴뢰들은 서울에서 미국과 함께 유엔의 새로운대조선 《제재결의》의 그 무슨 《철저한 리행》을 위한 《고위급제재협의》라는것을 가지였다. 여기에서는 독자적인 《제재》와 유엔 《제재결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 누구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 위한 꿍꿍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협의이후 괴뢰패당은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허세를 부리였다.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 환장한 상전의 구린내나는 사타구니나 핥아주는 대가로 식민지주구의 잔명을 부지해가는 괴뢰역적패당이 무슨 큰일이나 해제낀듯이 으쓱거린것은 참으로 웃음꺼리이다. 상전과 주구가 더러운 입맞춤을 해가며 벌려놓은 이번 반공화국 《제재》 모의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국력과 막강한 잠재력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또 알수도 없는 청맹과니들의 가소로운 추태이다.

미국과 박근혜패당이 반공화국 《제재》 놀음으로 우리를 어째보려 하는것은 실로 오산이다. 그것은 돌멩이 갖다놓고 닭알되기를 바라는것과 같은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묻건대 미국과 괴뢰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의 도수를 언제 한번 낮춘적이 있는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지금껏 감행해온 반공화국 《제재》 소동은 집요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남들같으면 그 무정의 공세앞에 아마 열때번도 더 쓰러졌을것이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은 원쑤들의 흉악무도한 고립압살책동속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력자강으로 더욱 강위력해졌다. 우리는 자기의 자원과 기술, 자기의 힘으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국방력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다. 우리 조국은 날을 따라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전변되고있으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퍼지고있다.

첫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는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국력, 무진막강한 잠재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적대세력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박속에서도 반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고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전략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을 마음먹은대로 쌍쌍 만들어내고있는 우리 공화국은 세인의 경탄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역적패당이 미국상전과 함께 《고위급제재협의》니 뭐니 하며 아직도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 개꿈을 꾸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련한자들인가.

시당개 삼년에 풍월을 짓는다는데 아무리 초보적인 판별능력마저 상실한 천치, 바보라고 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저들의 오판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는가.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것은 무용지물이다. 그따위 쓸데없는 놀음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노도와 같이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겠다는것은 사실상 소를 보고 닭알 쌓겠다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짓이다.

비국은 괴뢰역적패당이 아직까지도 경각에 달한 저들의 비극적운명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해치는데 열을 올리고있는 사실이다. 미국과 함께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천하무도한 불장난소동들을 벌려놓고있는 박근혜역적무리에 대한 천만군민의 분노와 적개심은 하늘을 찌르고있다. 지금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은 청와대를 일격에 재가루로 만들고 남반부를 단숨에 타고앉을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최후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괴뢰들이 미국상전과 공모결탁하여 우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것은 주체조선의 도도한 전진과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복수열기에 기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 림종을 앞둔자들의 지랄발광에 지나지 않는다. 지고다니는것은 칠성판이요 먹는것은 사자밥인 주제에 새빠진 《제재》나발을 불어대며 누구를 어째보겠다고 날치니 실로 조소를 금할수 없다. 다시금 경고하건대 박근혜일당은 구차스러운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명하려면 자중해야 한다.

심 철 영

수령결사옹위성전에서 조선녀성들의 불굴의 신념과 혁명적기질을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성명

우리 공화국의 전체 녀성들은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는 천하무도한 미제와 박근혜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보복열기로 심장을 활활 불태우고있다.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방대한 병력을 내몰아 련일 벌려대는 천추에 용납 못할 우리에 대한 도발망동은 적들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의 흉적목표를 어디에 두고있으며 그 흉계를 실현해보려고 얼마나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준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해나선 잔악무도한 원쑤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는것이 하늘땅에 메아리치는 이 나라 전체 녀성들의 복수의 절규이고 서리발치는 웨침이다.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녀성들은 피어린 항일대전의 그날 총을 잡고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바쳐 사수한 녀대원들과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최고사령부의 안녕을 한몸이 옥탄이 되여 보위한 녀전사들의 고결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그대로 이어 천만군민과 함께 남반부를 해방하기 위한 조국통일대전의 최후결전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우리 당을 위하여,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식들의 운명과 미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쳐 싸우는것은 조선녀성들의 불굴의 신념이며 혁명적기질이다.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녀성들은 우리 인민의 명줄을 끊어버리려는 철천지원쑤 미제침략자들과 망녕이 들어 분별을 잃고 날뛰는 개보다 못한 박근혜년의 도발망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짓이며 그 값비싼 대가를 어떻게 치르어야 하는가를 피의 복수전에서 몸서리치게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녀성들은 무고한 남녘민중을 희생물로 삼아 핵전쟁의 도박판에 들이밀려는 박근혜패당의 무모한 광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자식들이 핵전쟁의 도가니에 말려드는것을 원치 않는다면, 자신과 가족들의 삶이 정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녀성들부터 떨쳐일어나 핵전쟁광신자들을 징벌하기 위한 투쟁의 불을 지펴올려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전체 녀성들은 세기를 이어 조선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재난을 강요해왔으며 이 시각도 신성한 삼천리강토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침략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매국역적 박근혜년을 쓸어버리기 위한 최후결전에서 조선녀성의 영웅적기개와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할것이다.

주체105(2016)년 3월 29일

평 양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항의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단체들이 21일 괴뢰외교부앞에서 미국의 대조선 《제재》소동에 편승해나선 역적패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미국과 마주앉아 북에 대한 《제재》문제를 모의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긴장을 초래하는 위험한 음직임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당국이 북을 압박하기 위한 대결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개성공업지구근로자협의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성공업지구폐쇄조치로 북남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는 괴뢰당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렸다.

단체는 《공단폐쇄, 직장폐쇄, 가정파탄 우리는 죽고싶다.》, 《정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채 뺏아갔다! 정부는 책임지고 보상하라!》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당국의 부질없는 대결소동때문에 민중의 삶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있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친일굴종행위가 빚어내는 후과

얼마전 일본당국은 다음해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들에 대한 검정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결과 그 교과서들에 《독도(다께시마)는 일본의 령토》라는 황당무계한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다. 개꼬리 삼년 가도 황모 못된다고 파렴치한 날강도 일본반동들의 본성이야 어디에 가겠는가. 문제는 일본당국의 독도강탈책동이 남조선괴뢰들의 비굴한 친일굴종행위와 떼여놓고 볼수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당국은 지난해말 괴뢰들과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꾸며낸 후 남조선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니 뭐니 하는 너스레를 떨면서도 외상을 비롯한 고위급인물들을 내세워 《성노예제도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뻔뻔스럽게 놀아댔다. 지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앞에서까지 뻐젓이 력사외곡책동을 감행하여왔다. 그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토한 독도를 또다시 저들의 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며 그 내용을 교과서들에 쪼아박는 도발을 걸어 괴뢰들의 면상을 후려갈긴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날이 갈수록 친일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패당의 약점을 휘어잡은 일본반동들의 술책이다. 괴뢰들의 심중을 떠보며 과거죄행을 덮어버리고 야금야금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계책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민심이 일본의 로골적인 력사외곡, 독도강탈행위에 분노하여 부글부글 끓고있는데 괴뢰당국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있는가. 일본당국이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내용을 교과서에 쪼아박는 검정결과라는것을 발표하자 괴뢰외교부것들도 그에 대해 《항의》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하지만 이것은 남조선 각계의 규탄여론을 모면하고 저들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한갖 생색내기에 불과한것이였다.

만일 괴뢰들이 일본의 력사외곡과 독도강탈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격분하고 그것을 저지할 의도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일본군성노예문제와 관련한 굴욕적인 《합의》부터 페기하는것이 정상이다. 그것은 남조선 각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일본반동들이 그 치욕스러운 《합의》를 구실로 남조선괴뢰들을 하찮게 여기며 점점 더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있다는것은 내외가 인정하고있는 사실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일본의 너절한 행위는 지난해 보수당국이 일본과 꽁그러낸 굴욕적인 《합의》가 낳은 필연적결과라고 하면서 당장 그것부터 무효화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박근혜역적패당은 오히려 력대 그 어느 집권자도 풀지 못한 문제를 저들이 풀었다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력대 최악의 친일굴종망동을 정당화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해결》이라는 내용을 쪼아박은 문서에 스스로 묶이여 때일같이 더져나오는 일본반동들의 남강도적인 력사외곡망발에 대꾸 한마디 못하고 전전긍긍하고있는것이 괴뢰역적패당의 가련한 몰골이다.

박근혜패당이 인민들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굴욕적인 《합의》를 페기하지 않고있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뼈속까지 들어찬 친일굴종의식과 동족대결야망때문이다.

문제의 《합의》는 미국의 대아시아지배전략의 일환으로서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미국의 각본에 따른것이다. 괴뢰역적패당은 미국의 입김에 따라 일본까지 등에 업고 동족을 압살할 흉심밑에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반일기운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굴욕적인 《합의》를 꾸며낸데 이어 그에 기초하여 미, 일상전들과의 반공화국압살공조강화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러니 박근혜패당의 속심을 잘 알고있는 일본이 점점 더 고자세를 취하면서 력사문제,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괴뢰들에게 저들의 날강도적인 주장을 내리먹이게 되여있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가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새로운 장》이니 뭐니 하고 떠벌이는것은 극악한 친일매국노의 더러운 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민족의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더라도 동족압살야망만 실현하면 그만이라는것이 박근혜역도의 속타산이다.

외세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며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친미, 친일굴종행위에 미쳐날뛰는 박근혜역적무리부터 단호히 제거해버려야 한다. 이것이 일본반동들의 과렴치한 력사외곡, 독도강탈책동에 분노하는 우리 겨레가 다시금 내리게 되는 결론이다.

김 철 남

승리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공격전의 함성 높이 울린다

70일전투의 백열전이 벌어지고있는 룡양, 대흥청년영웅광산들을 찾아서

기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람있이 보낸 백날, 천날보다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산 하루가 더 값높고 귀중하며 빛나는것이다.》

지금은 봄기운이 짙어가는 3월, 그러나 굴지의 광물생산기지들이 있는 검덕지구의 아침은 산발은 녹지 않았다.

여기는 경치만 류다르지 않다. 북방의 산악미가 한껏 펼쳐진 이곳이 바로 력사적인 당대회들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들에서,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시기에 조직한 전투들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린 전구였다.

우리는 이번에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70일전투에 떨쳐나선 검덕지구의 광산들에 대한 기행길에 올랐다.

백금산에 승리의 기발을

우리가 단천시를 떠나 급이급이 산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룡양광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력력히 어려있고 광부들의 위훈이 그대로 유명한 작품을 낳은 광산에 도착하고보니 정든 고향을 찾은것만 같았다.

이날 우리가 먼저 찾은 곳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8(2009)년에 현지지도하신 6월5일갱이였다. 갱안에 들어서니 로천광산에서만 보아오던 광경이 우리앞에 펼쳐졌다. 갱안에 줄지어 들어선 대형화물자동차들에 광석을 싣는 모습은 절로 가슴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정말 볼만 하다는 우리의 말에 부문당비서인 김명국동무는 놈들의 전쟁연습과 관련하여 당보에 게재되는 성명들을 새겨안은 광부들이 전선에 포탄을 실어보내는 심정으로 일하고있다고, 그래서 어제만 해도 조영근동무를 비롯한 채광소대원들은 밤새 운광을 위한 발파를 해놓았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70일전투는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를 들고 원쑤들의 정수리에 광물폭포를 들씌우는 준엄한 격전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럴수록 광석을 무드기 싣고 가는 대형화물자동차들이 그대로 《모든것을 전선에로!》라는 글발을 붙이고 달리던 전화의 자동차들처럼 여겨지였다.

격전전야의 전선지대와는 멀리 떨어져있어도 조국결사수호정신으로 광물생산을 다그치고있는 광부들의 모습을 여러갱에서 본 우리가 금산갱에 이르렀을 때는 사위에 어둠이 깃들었다. 우리가 불빛이 흘러나오는 사무실에 들어서니 갱장 박춘봉동무와 부문당비서 량천석동무, 7호굴착기영웅소대의 선동원 송순애동무가 충정의 70일전투기록장을 마주하고있었다.

갱장동무가 부문당비서에게 전투기록장에 영웅소대의 굴진성과를 쓰자고 하자 송순애동무는 소대원들이 굴진에서 혁신을 일으킬수 있게 비력치리를 말아해준 가족소대원들의 소행을 적어달라고 말하는것이였다. 이때 문이 열리며 한 광부가 들어섰다. 그는 《갱장동지, 우리 중대가 오늘계획을 190%로 넘쳐 수행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얼굴에 내배인 땀을 훔치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그는 중대장 김성근동무였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지금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우리 인민은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전투기록장을 놓고 총화짓고있다. 그 기록장들에 헌신적인 노력과 지혜, 불같은 열정으로 이룩한 성과를 새기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꽃펴나겠는가.

모든것이 넉넉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하는 우리의 70일전투가 아니다. 하루에 매일매일 달성하는 성과를 우리는 백열전을 치르고 맞보는 전투승리처럼 귀중히 여기며 그 승리를 새로운 전투승리의 도약대로 삼는것 이냐야. 원쑤격멸의 의지안고 떨치는 혁신과 위훈으로 하여 백금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릴 그날이 앞당겨진다는것을 확신하게 하는 잊지 못할 룡양의 밤이였다.

영웅, 그 부름앞에 떳떳이 살리라

지금 검덕지구의 광산들은 높은 증산목표를 내세우고 분초를 쪼개가며 작전하고 실천해나가고있다. 하다면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무엇을 믿고 굴함없이 돌진해나가고있는것인가.

우리가 룡양광산을 떠나 대흥청년영웅광산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마침 그곳 일군들과 광부가족들이 지원물자를 안고 무학분광산의 전진갱으로 간다며 우리를 이끄는것이였다.

그들과 함께 걷느라니 우리의 눈가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광산에서 세운 혁혁한 위훈을 두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며 광산을 《대흥청년영웅광산》으로 명명해주시고 로동계급에게 경의를 표시하신 력사의 그날이 어제일처럼 떠올랐다.

얼마후 우리가 전진갱으로 들어서려는데 멀리서 《쿵—》하는 발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이끌려 얼마쯤 갱으로 들어가느라니 훤밝은 곳에서 웃음소리가 울려오고있었다. 광산일군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광부들은 이번 발파에 광석 천t은 문제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광부가족들은 그럼 이 음식을 들고 또 돌격전을 벌려달라고 탕부하는것이였다.

이윽고 갱안에서는 광부들과 가족들이 한가정처럼 어울려앉아 웃음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들속에 끼여있는 한 처녀를 가리키며 그가 어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고 갱장 심혁철동무에게 물었다. 갱장동무는 압축기운전공 장철복동무라고 알려주고나서 그가 영웅광산에서 일한 아버지처럼 일하고싶어 광산에 온 제대군인이라고 덧붙여 말하는것이였다.

우리가 철복동무와 만나 어떻게 그런 결심을 내리게 되였는가고 묻자 처녀는 《우리 광산이 받아안은 고귀한 칭호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받들어 영원히 빛내이고싶었을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처녀의 말은 짧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말에서 영웅이라는 고귀한 부름을 빛내이려는 광산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장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

우리의 생각을 깨치며 누군가가 《동무들, 우리모두 노래 〈발걸음〉을 부릅시다.》하며 선창을 떼였다.

노래가 끝나자 갱장동무가 한손을 추켜들고 《동무들, 지금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친개마냥 분별없이 날뛰는 원쑤놈들에게 철추를 내리시기 위해 전선길에 계십니다. 우리 영웅광산의 광부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맞추어 70일전투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고 승리의 광장에 들어섭시다.》라고 호소하였다.

갱안의 불빛에 억센 팔뚝을 내흔드는 광부들의 모습이 불사신처럼 드러났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확신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있어 세상을 놀래우게 될 만리마시대의 기적과 신화가 끝없이 창조되리라는것을.

* *

이런 영웅적인 투쟁, 영웅적인 삶이 있기에 70일전투는 반드시 위대한 승리로 결속될것이다.

본사기자 차 수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으로 생산을 다그치고있다.
— 룡 양 광 산 에 서 — 본사기자 찍음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우주개발은 주체조선의 불굴의 넋이며 억척불변의 궤도이다

세계가 번영과 발전을 위해 줄달음치고 있다. 강국건설과 민족의 부흥에 대한 강렬한 지향은 무변광대한 우주에로 뻗치고있다. 어제날 달속의 계수나무를 은도끼로 찍고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을 지어놓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했던 우리 민족에게도 자기의 위성이 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은 주체조선이 우주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섰음을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존엄과 지위는 억척불변이다.

불의에 젖어있고 강권과 전횡이 체질화된자들은 어리석게도 우주에 닿은 우리 공화국의 위용을 허물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불법》이요, 《전면봉쇄》요 하며 비린칭을 돋구다못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제재몽둥이까지 휘둘러댔다. 유엔이 창립되여 70여년동안 수천건의 안전보장리사회 결의가 채택되였어도 위성발사를 범죄시한 결의를 조작하여 제재를 가한 실례는 없다. 강력한 주권국가의 자주권을 말살하려고 떼지어 달려드는 호전광들의 망동에 세계의 지성과 량심이 분노하고있다.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주체조선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이다. 원쑤들이 궤변대는 잡소리에 놀라서, 붕괴의 그물을 친다고 해서 잠길을 멈추거나 바꿀 우리가 아니다. 민족의 생명이자 나라의 존엄인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양보란 있을수 없다. 반공화국《제재》소동에 광분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며 멋없이 날뛰는 얼간망둥이들은 우주에로 향한 우리 공화국의 힘찬 전진이 어떤 길이며 여기에 무엇이 응축되여있는가부터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우주정복을 위한 투쟁은 인류의 자주와 정의를 위하여 벌리는 심각한 정치적대결전이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화목하게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인류공동의 념원이다. 19개 장에 111개 조나 되는 유엔헌장과 무수한 조약들마다에 일관되여있는것은 평화와 자유, 평등과 공정성이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침략과 간섭, 불평등이 살판치고있으며 더욱 로골화되고 횡포해지고있다. 우주공간에 위성이 날고 물질문화적부창조에서 일대 비약이 이룩되고있는 오늘에도 다른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이자들의 힘의 론리, 힘의 질서, 힘의 통치는 세계정치무대를 힘의 란무장으로 만들고있다.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미국식해석에 따라 선과 악이 규정되는 세력구도하에서 부정의가 정의를 심판하고 자위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들이 왕왕 범죄시되고있다.

로씨야국방성 항공우주군 중앙우주상황감시센터 책임자는 입수한 궤도정보에 기초하여 조선이 쏴올린 기구가 원격지구관측위성이라는 결론을 얻을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미국의 제임스 마틴전파망지센터의 한 연구원은 《북조선이 발사한 로케트는 위성발사체로 설계된것으로서 위성발사가 맞다.》고 확언하였으며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우리의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에 《광명성》이라는 글자를 따서 《KMS—4》호라는 표기를 달았다. 우리의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라고 물아붙이는 론거는 터무니없다. 우주개발력사가 오래다고 자랑하는 나라도, 위성보유수에서 제노라고 뽐내는 나라도 아직까지 탄도미싸일기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위성을 쏘아올린 례는 없다. 이것은 우리의 위성발사문제가 위성의 성격이나 발사방식에 귀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립증해준다.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자주냐 예속이냐, 진보냐 반동이냐 하는 날카로운 정치투쟁, 계급투쟁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빼앗기 위해 피를 물고 달려들고있다.

지난 시기 더러운 침략야욕을 채우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과 략탈은 평토와 우리 행성의 재부를 놓고 벌어졌다. 더 많은 자원략탈과 통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도 일으키고 동란도 조장하였으며 암살과 테로도 꺼리지 않았다. 인류의 피땀을 짜내고 지구의 재부를 빼앗아 살쪄온 이자들이 오늘은 우주에도 지배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다. 우주에는 지구의 땅덩어리나 바다에 그어놓은것과 같은 국경선, 경계선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도 공동의 재부인 우주를 전체 인류의 리익을 도모하며 평화적목적에만 리용함데 대한 원칙이 세워졌다. 그러나 정등하면 망한다는 궤변밑에 미국은 독점을 위해 우주군사화에 매여달리며 무자비하고 포악한 강권행사를 감행하고있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는가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가르고 굴종하고 아부하지 않으면 발전의 길을 막아버리며 자주와 국제적원칙대로 행동하여도 《범죄》와 《악》으로 락인하는 특정국가의 횡포한 전횡이 우심해지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우주진출을 그처럼 악랄하게 막아나서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미국의 세계지배질서에 파렬구를 내는 강국으로, 세계정치를 주도하는 강국으로 등장하고있는것을 두려워하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은 영웅조선이다. 보병총과 원자탄과의 대결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전승은 힘이 약한 나라, 작은 나라들이 굴복당하고 치욕을 당하는것을 력사의 숙명처럼 감수하여왔던 수천년 전쟁사에 종지부를 찍은 20세기 기적이다. 제국주의우두머리의 《강대성》의 신화가 산산이 깨지고 영웅조선의 새 신화가 창조된 그때로부터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미국은 걸음마다 참패만을 당해왔다. 특히 랭전후 침예화된 조미대결은 우리 공화국이 횡포한 제국주의와 맞서 자기의 존엄과 원칙을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우리는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종말로 막을 내릴번 하였던 지난 세기를 사회주의승리의 세기로 빛내였으며 조선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원동력으로 되였다.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 제국주의는 결코 강한 존재가 아니며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군사를 중시하고 제국주의와 주동적으로 맞서 싸운다면 능히 승리할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수십년간에 걸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국제정치를 주도해나가는 정치강국, 대국들도 무시하지 못하는 핵강국이 되였다.

조미대결의 전 행정에서 패배의 수치스러운 전통을 쌓은 미국은 우주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있다. 조선이 강해지는것도, 잘사는것도, 통일되는것도 바라지 않으며 오직 저들의 리익과 세력권쟁탈의 희생물로 영원히 남아있어야 한다는 승냥이론리에 따라 강성번영에로 향한 우리의 불타는 지향을 필사적으로 막아나서고있다.

력사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돌려세울수 없다. 조선의 우주정복도 불가역적이다. 우리의 위성에는 억만금파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응축되여있다. 이 행성의 자주와 정의가, 자유와 정등을 바라는 인류의 간절한 소망과 미래가 여기에 실려있다. 자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당당했으며 무자비한 우리 공화국은 시대와 인류앞에 지닌 도덕적사명감을 무겁게 느끼고있다. 미제의 기나긴 압살공세를 종국적으로 끝장내기 위하여, 자유롭고 정화로운 세계건설을 위하여 우리는 력사의 반동들과의 관가리싸움에 나섰다. 자주가 지배를, 진보가 반동을,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심판하게 될 오늘의 반미대결전은 사형선고를 받고 쇠퇴몰락하고있는 악의 제국의 종국적파멸로 막을 내릴것이다. 우리는 우주정복의 길이 강권과 전횡의 국제질서를 짓부시고 자주적인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자주의 길이라고 긍지높이 말한다.

우리 공화국이 걷는 우주정복의 길은 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담보하는 자립의 길이다.

지구는 수십억의 인류가 발을 붙이고 사는 유일한 삶의 터전이다. 무수한 년대를 거쳐 인간의 생존과 발전에 복무해온 우리 행성이 지금 자기의 한계를 호소하고있다. 어디서나 자원고갈을 떠들고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말하고있다. 20세기 중엽까지만 하여도 《영원한 동토대》로 사람들의 관심밖에 있었던 북극까지도 자원쟁탈을 위한 힘겨루기무대로 변하였다. 우주는 사람들의 필수불가결의 생활령역으로 더욱 가깝게 접근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미래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되는 우주에로의 진출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우고 꾸준하게 노력해왔다. 원쑤들이 조선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떠벌이며 그 시간표까지 짜놓고있던 엄혹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첫 위성을 쏴올렸으며 오늘은 가없이 넓은 우주에 자기의 자리킬을 새기였다.

우리는 자강력으로 우주를 정복하였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우주에 자기 위성을 쏴올렸다고 하지만 100% 국산화라는 말을 할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우주대국들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도 위성제작과 발사에 필요한 주요부분품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다른 나라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위성을 제작하거나 통째로 사다가 자기 나라 이름을 붙이고 남의 발사체를 빌려 쏴올리면서도 위성보유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의 위성은 설계로부터 제작, 조립, 발사와 발사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것이 국산화되여있다. 100% 국산화, 여기에 우리 위성의 가장 큰 자랑이 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치렬한 경쟁은 첨단과학기술의 대결이다. 우리는 우주과학의 첨단요새를 점령하기 위해 남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한적도 없고 협력을 요구한적도 없다.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키려고 력사에 전무후무한 봉쇄책동을 벌리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위성기술은 물론 자그마한 첨단설비 하나라도 스며들어갈세라 이중삼중의 그물을 쳐놓고있다. 제재도 가장 극악한 제재, 도전도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도전속에서 굴하지 않고 일떠선 주체조선이 자기의 두뇌와 힘으로 인공지구위성을 연구개발하여 자기의 발사체로 쏴올린것에 대해 기성의 위성발사국들이 간섭하고 문제시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돌이켜보면 1957년 최초의 인공지구위성이 대지를 박차고 우주에 오를 때 세계는 자기의 경사처럼 여기였다. 첨단과학기술을 틀어쥔 나라들이 무수한 위성을 쏴올리며 우주에 자기의 령역을 넓힐 때에도 언제 한번 문제시된적이 없다. 부끄러운 국제법전의 그 어느 잘피에도 한 나라, 한 민족이 스스로 걷는 자강의 길을 다스려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만일 그런 법이 있다면 창조적능력으로 자연을 목적의식적으로 정복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생존자체가 위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자강력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부흥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힘이다.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날뛰는 원쑤들의 고립압살책동은 갈수록 포악해지고 도와주겠다는 나라도 없다. 자력자강의 길만이 피로써 지켜낸 자주적인민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고 민족의 부흥과 휘황한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주저없이 그 길을 선택하였다. 인공지구위성의 제작과 발사는 해당 나라의 막강한 국력과 과학기술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우리는 우주공간의 가혹한 조건에 견디여낼수 있는 특수한 금속재료들을 비롯하여 인공지구위성제작과 발사, 관제에 드는 모든것을 자립경제의 위력으로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위성개발을 주도한 과학자, 기술자들도 다름아닌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지식인들이다.

우주개발은 주체조선의 불굴의 넋이다. 사회주의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는 자강력으로 세계를 딛고오르는 우리의 억센 기상이다. 그 어떤 제재도 압력도 우리의 걸음을 멈춰세울수 없다. 오스트리아 원종합대학 교수 루디거 프렝크는 《미국의 제재속에서 생존해온 조선은 래일도 영원히 존재할것이다. 제재로 조선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것은 해와 별이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것과 같은 허황한 꿈이다.》라고 평하였다.

우주자원을 적극 리용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고 민족의 밝은 앞날을 열어놓자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고 정책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내세운 우주개발목표를 다지고다져온 자강력으로 키여이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지도 확고부동하다. 머지않아 세계는 새로운 만리마시대를 펼치며 우주정복에로 노도쳐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힘찬 전진에서 자기 위엄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자력자강하는 나라야말로 전도양양한 강국이라는 철리를 똑똑히 새기게 될것이다.

자주로 존엄높고 주체과학으로 위력하며 자강력으로 도도한 백두산대국은 세계에 선언한다. 조선의 우주정복의 길은 과학의 길이기 전에 혁명의 길, 자주, 자립의 길이다. 자주의 불변궤도에 감히 칼질을 하려고 날뛰는 원쑤들의 히스테리적인 대결광기는 우리 공화국의 국력에 질겁한 공포와 절망의 몸부림이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사회주의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앞으로도 주체의 위성은 당중앙이 결심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주를 향하여 날아오를것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기의 려명을 부르며 조선은 솟구쳐오를것이다.

배 금 희

아메리카제국의 종국적파멸은 불가피하다

최근 미륙군참모총장이 국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발표한 미군의 전투력에 대한 보고서가 정세분석가들의 커다란 주목을 끌고있다. 보고서에서 그는 《만일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조선, 중국, 로씨야 등 군사대국들과의 전쟁을 하는 경우 미군의 전투력이 응당한 수준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조선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할수 없다.》고 실토하였다.

여러 외신들은 미군부우두머리의 발언내용을 《미군이 국방예산과 군수독점체들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짜내기 위한 전술》로 평가하고있다. 물론 미군부제층들이 예산문제를 다루는 국회에서 자금을 따내기 위해 우는소리를 해가며 아부해기를 칠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것도 아니다. 미군부우두머리가 실토한바와 같이 미국이 취약한것만은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군사평론가, 정세전문가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전개해놓고있는 미군사기지관리유지운영에 쳐넣는 자금을 들췌더라면 미군의 전투력이 지금과 같은 처지에는 놓이지 않았을것이다. 해외에 전개된 미군사기지들을 유지관리하는데 들던 비용을 미군강화에 쓸수 있다는 식으로 야유, 비평하고있다.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참 가련하게는 되였다. 세계제패야망에 환장이 되여 침략과 간섭만을 일삼는 미당국이 조소거리가 된것은 당연하다.

침략전쟁과 군사적압력, 내정간섭 등은 미국을 쇠퇴에로 이끌어간 근본요인이다.

미국은 랭전종식후 여러차례의 전쟁을 감행하였다. 특히 현세기에 있은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은 모두 미국이 세계에 대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벌린 전쟁들이다. 랭전종식이래 지금까지 평균 1년반만에 한차례씩 다른 나라에 대한 무장간섭과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미지배층의 머리속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타격할수 있으며 저들은 그 어떤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극도로 오만한 《특권의식》이 깊숙이 배겨있다. 세계에서 미국만이 옳고그른것을 판단할수 있는 《정치적기준》을 가지고있는것처럼 행세하면서 침략과 간섭행위도 《정의》를 위한것으로 정당화해왔다.

힘만능주의에 현혹된 미국은 막대한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해외군사기지를 확장하고 침략과 략탈을 위한 무장장비현대화와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렸다. 세계 주요군사대국들의 군사비를 다 합친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자랑하고있는 미국이지만 그것은 계속 늘어났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새로운 핵무기개발에 광분하여왔다. 핵무기분야에 해마다 500억US$이상의 자금을 쏟아부었다.

미국은 잠재적적수들을 규정하고 그 《위협》설을 제창하면서 다른 나라와 지역들에 대한 핵선제공격론을 정당화하였다. 적수들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기 위해 나토확대를 다그쳤다. 전략적우세, 힘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천문학적수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쏟아부었다.

미국의 집요한 패권주의야망실현책동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1조US$이상의 재정적자를 내고 국가채무액이 18조US$이상에 달하고있다. 막대한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미국은 할수 없이 군사비를 축감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의 군사력도 심히 약화되고있다. 본토의 안보환경이 위협당한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자랑하던 미국이지만 여러 나라들의 첨단타격무기개발로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옛말로 되였다. 침략으로 생존하고 전쟁으로 비대해진 미국에 차례진 응당한 대가이다.

력대적으로 미국은 힘의 사용을 국책으로 삼고 침략과 전쟁, 내정간섭을 일삼아왔으며 그를 통해 많은 리익을 챙겨왔다.

비극은 아직도 무기만능론에 환장한 미국이 어리석게도 저들의 힘의 정책이 파산직전에 있다는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다는데 있다.

최근년간 세계곳곳에서 미국주도시대의 종말, 미국의 조락 등에 대해 주장하는 론조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으나 미지배층은 자국이 여전히 세계를 《지도》하게 될것이라고 희떱게 놀아대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미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본전장으로 선정하고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있다. 방대한 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돌리고있다.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놓고 이 지역에 미해군무력의 60%를 집중시키고있다. 어떻게 해서나 패권적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발광하고있는 미국이 특별히 주목하고있는 곳은 조선반도이다. 오바마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핵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며 마지막도박을 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1차적인 공격목표로 선택하고 압살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합동군사연습은 하늘과 땅, 바다는 물론 우주공간까지도 전장으로 정하고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미국주도의 련합세력의 각 군종, 병종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중요대상, 지역들에 대한 선제타격과 완전한 점령에 기본목적을 두고있는 예비전쟁, 핵시험전쟁이다.

오늘날 조선반도는 미국이 로골적으로 강행하는 힘의 정책의 극악한 시험장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선제공격을 기본으로 하는 모험적인 핵전쟁소동에 계속 매여달리는 조건에서 우리도 그에 대처하여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세계제패야망에 환장이 되여 침략과 간섭만을 일삼는 미국은 이제라도 반제반미대결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결사의 의지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 미국은 힘이 진해가는 자국의 처지를 두고 야유조소하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해외군사기지들 특히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만일 미제가 물러가지 않고 또다시 이땅에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는 아메리카제국의 종국적패전사를 보기 좋게 써줄것이다.

리 현 도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의 전주곡

위험천만한 침략책동
지역기구 성명 발표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범죄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2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은 규모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을 비롯하여 세계 진보적세력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위험천만한 침략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우리는 불패의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으로부터 신성한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취하게 될 핵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자위적조치들을 적극 지지한다.

조선의 자위적조치들은 국제법에도 완전히 부합된다.

평화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행위
로씨야, 체스꼬단체 성명 발표

로씨야, 체스꼬단체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21일과 22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로씨야 까렐리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책동에 적분을 금할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체스꼬 체히, 모라바, 실레지아로조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극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준렬히 규탄한다.

미국이 남조선과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의 전주곡이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침략전쟁책동을 즉시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끈질긴 반공화국압살소동
벨가리아정계인사 담화 발표

벨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아따나스 이와노브가 미제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죄하여 2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미국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목적에 대하여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1950년—1953년 침략전쟁에서 공화국을 정복하지 못하였고 지난 세기말 공화국을 붕괴시키지 못한데 대해 부아통을 터치고있으며 따라서 오늘 저들의 목적을 기어코 이루어보려고 온갖 반공화국모략소동을 끈질기게 벌리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최강》을 떠들며 1950년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 당한 쓰디쓴 참패를 잊지 말아야 한다. 미제호전광들은 이에 대하여 똑바로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미국회의사당에서 총격사건으로 혼란 조성

미국에서 총기류범죄가 매일과 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속에 28일 미국회의사당주변에서 총격사건이 벌어져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한 사나이가 국회의사당 검문소앞에서 근무를 서고있던 경찰에게 사격을 가하여 부상을 입히였다.

경찰들이 출동하여 그를 체포한다, 고도의 경계조치를 취한다 하면서 복닥소동을 피웠으며 공무원들과 방문객들이 사무실들에 뛰여들어가 피신하는 등 사건현장주변이 아수라장이 되였다. 이 사건으로 의사당건물은 물론 대학관도 일시 폐쇄되였다 한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항공운수발전노력

아랍추장국련방에서 항공운수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23일 이 나라 정부는 두바이국제비행장의 려객수송능력을 2025년까지 2 650만명으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

산림조성계획

수단정부가 날로 확대되고있는 사막화의 영향을 막기 위한 새로운 산림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길이 285km, 너비 200km에 달하는 대규모산림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산림조성사업은 4단계에 걸쳐 4년내에 끝나게 된다 한다.

박물관건설계획

말따정부가 박물관을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에 따라 나라에서 두번째로 큰 섬인 고조섬에 박물관과 문화센터가 건설되게 된다.

4일 정부는 박물관건설이 고조섬을 지역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항의투쟁

포르뚜갈의 리스봉에서 11일 목축업자들의 대중적인 항의투쟁이 벌어졌다. 항의투쟁에는 많은 목축업자들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정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자기들의 생활처지가 더욱 악화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당장 걷어치울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 프랑스에서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여 시위 ◎

항의집회

일본 도꾜에서 19일 당국의 《안전보장관련법》시행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에는 시민단체성원들을 비롯한 5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안전보장관련법》을 당장 폐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항의시위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11일 농민들의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전국각지의 농민들 수천명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으로 자기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있는데 대해 항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대기오염과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노력

세계가 대기오염이라는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였다.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있다. 그 후과는 매우 심각하다.

인디아의 뉴델리에서는 대기오염으로 매일 2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어린이 3명당 1명이 폐질환을 앓고있다.

아시아의 어느 한 나라의 도시들에서는 대기오염이 너무 심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서는 밖에 나다닐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도시를 뒤덮은 짙은 내클안개에 의하여 비행기운행이 중지되는가 하면 고속도로들에서는 자동차충돌사고들이 련발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초, 중등학교들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조성되고있다. 에스또니아,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메히꼬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들이 계속 나고있다.

문제는 대기오염물질들이 기류를 타고 다른 지역들에로 퍼져나가면서 그에 의한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있는것이다. 이로 하여 대기오염문제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방관시할수 없는 세계적인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에 의한 각종 질병으로 매해 700만명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까지 합하면 대기오염으로 초래되고있는 인명피해는 더 클것으로 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대기오염은 인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보다 심각한 문제들도 야기시키고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대기오염이 세계기후와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들이 구름형성과 강수량, 태풍의 세기 등 여러가지 기상요소들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기후까지 변화시키게 된다고 한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그을음과 같은 흑색탄소립자들이 북극의 얼음에 달라붙어 그것을 빠른 속도로 녹이고있다는 사실이 판명되였다.

알려진것처럼 북극의 얼음산이 녹아내리게 되면 이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바다물면상승에 의한 침수피해를 입는 등 부정적인 후과들이 초래되게 된다.

몇해전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잡지에는 디젤기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꿀벌의 꽃냄새식별능력이 떨어지고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꿀벌의 마리수증가와 꽃가루받이에도 영향을 미쳐 전세계적인 알곡수확량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대기오염은 세계식량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엄중한 위협을 주고있다.

지구상에 초래된 이러한 부정적인 사태는 인류가 산업혁명이후시기부터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대량적으로 사용하며 경제활동을 벌린것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화석연료가 화력발전소들과 각종 운수수단들, 가정들에서 각이한 용도로 리용되는 과정에 대기오염물질들이 대량 방출되였던것이다.

세계산림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도시지역들에 인구가 지나치게 밀집되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도 대기오염현상을 더욱 촉진시켰다.

현시기 많은 나라들에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방출량이 기준수치를 훨씬 넘는 공장들은 대탈하게 폐기시키고있다. 그밖의 공장들에 한해서는 연소효률과 에네르기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실용을 적극 장려하고있는 나라들의 수도 늘어나고있다.

세계적으로 모든 운수수단들의 운행을 수소연료나 축전지를 리용하여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늘어나는 에네르기수요를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자연에네르기, 록색에네르기에 의거하여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자체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조수력, 원자력, 생물연료 등을 적극 리용하려는 이 나라들의 노력은 대기오염방지사업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게 하고있다.

이란은 가까운 앞날에 지하철도로선을 늘일것을 계획하고있으며 단마르크와 같이 자전거리용을 적극 장려하고있는 나라들의 수도 늘어나고있다.

대기오염의 주요원천인 자동차배기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법적조치들도 강화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사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수백만대의 낡은 자동차들을 폐기시키고있으며 인디아에서는 개인용자동차들이 제정된 날에만 운행하도록 하고있다.

이란은 가까운 앞날에 지하철도로선을 늘일것을 계획하고있으며 단마르크와 같이 자전거리용을 적극 장려하고있는 나라들의 수도 늘어나고있다.

대기오염의 주요원천인 자동차배기가스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행정적, 법적조치들도 강화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사용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수백만대의 낡은 자동차들을 폐기시키고있으며 인디아에서는 개인용자동차들이 제정된 날에만 운행하도록 하고있다.

이란은 가까운 앞날에 지하철도로선을 늘일것을 계획하고있으며 단마르크와 같이 자전거리용을 적극 장려하고있는 나라들의 수도 늘어나고있다.

세계적으로 모든 운수수단들의 운행을 수소연료나 축전지를 리용하여 보장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늘어나는 에네르기수요를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자연에네르기, 록색에네르기에 의거하여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자체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태양열, 수력, 풍력, 지열, 조수력, 원자력, 생물연료 등을 적극 리용하려는 이 나라들의 노력은 대기오염방지사업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두게 하고있다.

산림의 면적을 늘이고 도시를 록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나무와 풀과 같은 식물의 잎은 공기중에 떠도는 먼지, 그을음과 같은 대기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나라들이 전망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나무심기사업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광범하게 벌리고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도시지역들에서 가로수를 많이 심는것과 함께 전문육상들을 록화하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화학반응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질짤이들을 개발하였다.

시내의 한 걸음길구간을 이것으로 포장한 결과 공기중의 오염물질이 45%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울리, 타일과 같은 건설재료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모든 나라들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세계적인 골치거리로 제기되고있는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안철권

ㄱ-61051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6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6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